

# 한우미당

vol.196

Hanwoo Journal  
2023.03



3월호 표지 이미지

- 32 **권두언**  
경기도 한우의 명품화 '한우 명품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 34 **주요일정 돋보기**  
2023년도 본회 대의원 정기총회 이모저모

## 기획특집

- 38 **2023년도 경기도 한우정책 톺아보기**
- 42 **한우도지회장이 간다!**  
특별대담-이연목 인천경기도지회장
- 48 **이달의 한우인**  
박덕흠 국회의원

## 현장·탐방

- 52 **대한한우 농가탐방**  
금철농장 이상규 대표



## 이슈·동향

- 56 완주군지부 축산자재창고 준공
- 60 2월 한우동향분석
- 68 글로벌뉴스

## 사양·컨설팅

- 73 컨설팅  
BA플러스
- 76 수의칼럼-질병·방역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 80 전문가칼럼-개량  
김병숙 한국종축개량협회 경기인천지역본부장
- 84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교육자료
- 94 그래프로 보는 2022년 한우사육농가  
경영실태 및 농가인식 조사 보고서

## 문화마당

- 98 2023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주요제도
- 102 달력에 숨은 과학-24절기
- 106 한우산업기본법 서명운동 안내
- 110 협회사료안내
- 112 구독안내



전국한우협회

www.kistock.co.kr

대한민국 축산의  
가치와 연속성  
Value & Continuity  
of K-livestock

#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Korea International Livestock EXPO 2023

2023. 9. 6(수) ~ 8(금), 3일간 / 대구 EXCO 서관 1층 전 홀 및 야외

## 전시 참가 기업 모집

**참가 신청 기간** 2023. 1. 9(월) ~ 5. 31(수) ※ 선착순 /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

**참가 신청 방법** 1) 박람회 홈페이지 접속 (www.kistock.co.kr)  
'참가 신청 안내' 및 '참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참가 신청 또는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사무국 메일/팩스로 제출  
2)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계약금(참가비 50%) 납부

**사무국 연락처**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사무국  
Tel | 02-574-0465  
Fax | 02-521-4049  
E-mail | kistock2023@gmail.com

## 경기도 한우의 명품화 ‘한우 명품道’ 지속가능한 축산모델 개발 도민 친화형 축산업 육성 최선



월간 한우마당 3월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님과 전국의 한우농가 여러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축산업 생산액이 4조 원에 육박하는 명실상부 축산 1번지로 가축 사육 마릿  
수 또한 3,430만 마리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경우 약 6,000 농가에  
27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한우 명품도(道)’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신 한우농가와 전국한우협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한우농가들은 국제 곡물가격 상  
승으로 사료 가격이 폭등하고 경제위기로 한우 소비가 급감하는 이중고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기도 한우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는 올해도 지속가능한 축산모델을 개발하고 도민 친화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우농가에 우량 한우 유전자의 보급함으로써 고품질 한우 생  
산을 위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한우산업 경  
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한우농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경기도지사 김동연

2023년도 본회 대의원 정기총회... 4년만에 개최

## ‘한우산업 안정화’ 정부-한우농가 ‘한마음 한뜻’ 한우 암소 7만두 자율감축 결의



대의원 정기총회 회의(감사보고)



개회사중인 김삼주 중앙회장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27일 재능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한 2023년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주요 정책추진사항 및 정기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2022년도 결산안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 원안 의결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한우 암소 감축 결의대회’에서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한우산업 공동체와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만큼, 한우농가의 책임있는 자구노력과 실천을 위하여 7만두의 한우 암소를 감축할 것을 천명했다. 암소 자율감축 두수는 지역별 한우 100두 이상 사육농가의 증감율, 한우암소 사육두수, 회

원수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 채택된 결의문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대신하여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이 참석해 전달받았다. 2022년도 우수지부 및 회원에 대한 시상에선 탄소중립 선도 한우농가에 ▲덕풍농장 오삼규 ▲제주 한라한우촌 양익중 회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한우협회장상에는 옛한우농장 주창수 회원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상엔 한소축산 김경민 회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한우산업 발전 유공으로 상원농장 신종경, 기태농장 김성찬 농가(농협축산경제대표)



애국가 제창중인 내빈 및 대의원들의 모습

MOU 협력업체 소규모 홍보부스 운영  
우수 지부·회원·탄소중립 선도농가 시상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식량정책실장 축사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지주 안병우 대표 축사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축사

▲한우개량 우수 농가에 대지농장 최송규(한국종축개량협회장상) ▲한우개량이력관리 우수농가에 가평 민민호 회원이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 협회는 ▲경기 고양시 지부 ▲강원 회성군 지부 ▲충북 영동군 지부 ▲충남 태안군 지부 ▲전북 진안군 지부 ▲전남 화순군 지부 ▲경북 고령군 지부 ▲칠곡군 지부 ▲경남 고성군 지부 ▲울산 서울산지부 등 우수지부로 선정된 10개 지부에 조직활성화비와 패를 수여했다. 한편, 협회 MOU업체들은 자체 홍보테이블을 꾸리고 오랜만에 열린 총회자리를 빛내주었

다. 피드업, 대한싸이로, 올루션, 단바이오텍, 바울글로벌, 우양코퍼레이션, 애닉스, 대한뉴팜은 전국에서 모인 한우 지도자에게 각 사의 주력 제품을 소개했다. 김삼주 회장은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정부 예산지원이 수반된 만큼 우리 한우농가 스스로도 무거운 책임감과 성숙된 자세로 암소 자율감축에 동참하여 함께 조속한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협회는 수급조절뿐만 아니라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한우가격 연동제 시행, 한우 수출 확대 등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더욱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우 암소 자율감축 결의문 낭독  
(부산경남도지회 정훈재 사무국장)

(좌)김정희 식품정책실장 (우)김삼주 회장

시도지회장 한우 암소 자율감축 서명

## 한우 암소 자율감축 결의(안)

### 목적

- 한우 사육마릿수 감축 및 중장기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농가 스스로 한우 암소의 자율감축에 대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
- 총회 참석 대의원들 대상 자율감축 홍보, 감축두수 사전 서명, 결의문 낭독, 참여 목표 발표 등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3. 2. 27(월) 13:00~14:00
- 장소 : 재능교육연수원
- 인원 : 한우협회 대의원(290명), 농식품부 장관, 실무담당자 등

### 주요내용

- 한우암소 감축 목표 두수(14만두) 협회(7만두)·도별 감축두수 발표

## 한우 암소 자율감축 결의문

우리 '한우농가들'은 오늘날의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한우수급관리를 통한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암소 자율감축에 모두 동참할 것을 다음과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사육하고 있는 내 농장 암소 일부를 선제적으로 자율감축하기 위해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암소 감축 실현을 위해 도별 배정된 목표 물량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자율적 수급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우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암소 자율감축에 적극 동참하며, 정부 또한 한우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건의한다.

2023. 2. 27.  
전국 한우농가 일동

**한우 암소 자율감축 적극 노력하자! 안정된 한우 공급 다함께 동참하자!**  
**한우 수급안정 정부 대책 마련하라!**



## 탄소중립 선도 한우농가 선정사업 시상

### 장관상



영주 덕풍농장 오삼규

### 장관상

제주 한라한우촌 양익중(개별전달)

### 전국한우협회장상



옛한우농장 주창수

###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상



한소축산 김경민

## 우수 지부 및 회원 시상

### 우수지부상



▲경기 고양시 지부 ▲강원 회성군 지부 ▲충북 영동군 지부 ▲충남 태안군 지부 ▲전북 진안군 지부 ▲전남 화순군 지부 ▲경북 고령군 지부 ▲칠곡군 지부 ▲경남 고성군 지부 ▲울산 서울산지부

### 감사패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 류일선 박사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상



군산시지부 최송규 회원

### 농협중앙회장상



남해군지부 김성찬 회원(좌)  
의성군지부 신종경 회원(우)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



가평군지부 민민호 지부장

# 경기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 ‘경기한우 명품화’ 추진



경기도 가축 사육현황

(단위: 천마리, %)

구분	계	한우	젖소	돼지	닭
경기도 (A)	34,294	323	156	1,785	32,030
전국 (B)	191,417	3,694	390	11,124	173,136
점유율(A/B)	18.2	8.7	40.0	16.0	18.5

※ 전업화, 규모화 이면에 고령화와 소규모 농가 감소 지속 증가

※ 2022.12월 기준(통계청)

## 수도권 규제 등 불리한 입지 조건 속 농가 규모화, 현대화...전국 6위 사육 규모 유지

총면적 1만195.4km<sup>2</sup>에 28개 시와 3개 군으로 이뤄진 경기도는 1,397만2,297명의 인구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유일하게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다. 경기도의 10개 시는 50만에서 100만 인구를 초과해 대도시 특례 행정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한 권역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가축 사육현황은 전국대비 18.2%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한우농가는 5,670농가 27만2,856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수도권 규제 등과 같은 불리한 입지 조건 속에서도 농가의 규모화, 현대화를 통해 전국 6위의 사육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한우산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경기한우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우정책을 제대로 알아보자.

## 경기도, 최첨단 시설과 기술로 무장



축산 1번지 경기도는 한우정책에 있어서도 최첨단 시설과 기술로 무장, 지난해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2021년 전국 최초로 한우경진대회 집합심사에서 농장별 현장 심사를 비대면으로 실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졌다. 이 결과 지난해 전국한우경진대회는 경기도의 방식을 채택, 이 대회에서 경기도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축산업 여건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 이천과 파주에서는 노후 가축시장 스마트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했고 성적이 부진한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컨설팅도 신규로 실시됐다.



전국최초비대면한우경진대회

대형환풍기, 자동급이기, 축사전기안전진단, 가축행복농장(방목)



## 한우농가 위한 조사료 사업도 '열심'



### 가축분뇨 이용확대 살포지 949ha 확보

### 유통전문조직 26개소에 살포비 지원

경축순환농업 추진을 통한 가축분뇨 이용 확대도 한우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지난해 경축순환농업 추진을 통한 가축분뇨 이용확대를 위해 살포지 949ha를 확보했으며 퇴비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유통전문조직 26개소에 살포비를 지원했다. 한우농가들을 위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양질의 풀사료 생산지원 확대정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조사료 생산·지원으로 양질의 사료자원 확보와 수입사료 대체 및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했다. 이를 위해 사료종자 11만9,169kg, 사일리지제조 6만9,777톤, 기계장비 10대를 지원했다. 유희지를 활용한 야생풀 사료화 생산과 이용 확대를 통해 사료비 절감에도 애썼다. 군 민통선 530ha와 간척지 1,033ha, 하천부지 293ha 등 총 1,856ha를 활용해 총 24,128톤의 풀사료를 생산, 115억원 풀사료 수입대체 효과를 거둔 바 있다.

## 지자체 최초 자체 씨수소 사업 등 종축개발 추진



### 지자체 최초 자체 씨수소 생산기반 확충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자체 씨수소 사업 등 종축 개발을 추진, 자체 씨수소 사업 개발 및 관련법령 개정에도 앞장섰다. 특히 자체적으로 고능력우를 매입해 검정을 통한 씨수소 생산 기반 확충에 힘쓰고 있다. 후대성적 분석 및 친자·질병검사 완료된 고능력우 37두를 매입한데 이어 지난해 당대검정 40마리 개시 및 계절번식 220마리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당대검정우 중 12마리 후보씨수소 선발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축 생산·보급으로 가축개량 촉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당대검정종료우 22두를 비롯해 한우수정란 300개, 착한우동결정액 690개 등을 생산·보급한 바 있다.

## 한우농가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 양질의 풀사료 생산지원 확대정책 '주목'

사료가격이 올라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는 한우농가들을 위해서는 사료 품질관리를 통한 불량사료 유통근절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사료제조업체 1,840개에 대해 사료 제조업 인허가 및 사료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사료검사 목표는 688점으로 등록성분,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다.

정액등처리업 허가요건 완화를 위해서는 한우 등 소 정액 생산을 위한 종모우 보유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보증씨수소 5마리에서 씨수소 1마리로 완화했으며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검정기준 완화에 따라 가축 검정 시 도 축산연구기관 검정 의뢰는 필수다.

## 파워인터뷰



안용덕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

### 도시밀착형 축산업 발굴-친환경 축산업 육성

30여 년을 경기도에서 축산통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안용덕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은 최근의 어려워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배경 때문에 축산업 환경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뿐더러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축산을 지향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경험이 많고 농가들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을 위한 정책사

업이 한우농가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걱정했다. "30여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한우 농가를 비롯한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모든 경제가 주저앉을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한우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한우 산업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위기 상황 타파를 위해 경기도도 최선을 다하겠으니 한우 농가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별대담

“경기도에서 학교급식 성공모델로  
정부에 건의하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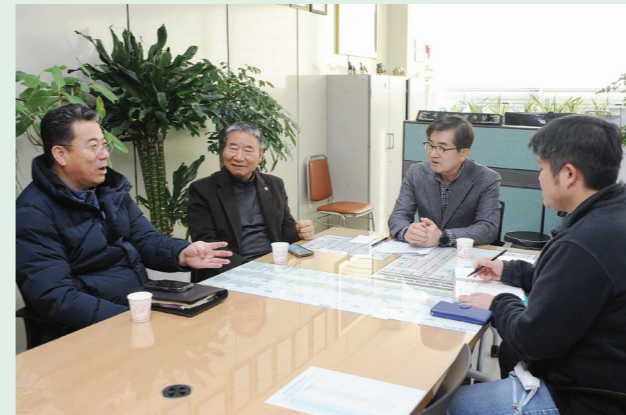
이연묵 전국한우협회 인천경기도지회장

“현장의 한우농가들과 적극 소통  
새로운 정책적 개발에 노력하겠다”



안용덕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

10개 시가 대도시 특례행정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화된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분리, 8개 도중 가장 도시분포가 큰 편이다. 때문에 수도권 규제는 물론 도시화에 따른 지대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 폐업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인구 분포가 큰 지역이 상재해 있어 축산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규모화, 현대화를 통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사육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자체와 지역농가들과의 상호교류, 소통이 한몫을 하고 있다. 이연묵 전국한우협회 인천경기도지회장은 경기도의 축산정책을 이끌고 있는 안용덕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날 대담을 중심으로 경기도 한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해 본다.



연 220억원이상 예산  
학교급식에 한우 공급 ‘큰 힘’

**이연묵 >>** 우선 경기도에서 한우농가들을 위해 애써주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 사실상 경기도는 한우농가들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펼치는 지자체로 유명하다. 경기도의 한우농가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커뮤니티에 ‘경기도 축산정책과를 찾아가니 의견들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미 모든 것이 전달돼 할 얘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경기도청과 한우농가들의 소통이 원활하다.

**안용덕 >>** 경기도는 전국 6위의 한우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경기도내에서 한우산업의 입지는 그만큼 중요하다. 때문에 지역의 한우농가들이 가장 쉽게 느낄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늘 고심하고 있다. 또한 한우의 광역브랜드화에 따른 소비지를 고려해 수도권 소비층의 눈높이에 맞춰 개량, 사육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한우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한우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은 ‘경기한우 명품화’라고 할 수 있다.

경기한우 명품화는 경기도는 물론 우리나라 한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총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우 개량 촉진과 수급 관리 목적의 ‘개량사업’과 농가 기반 유지 및 경쟁력 강화 목적의 ‘자율사업’으로 구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연묵 >>** 경기도가 한우육성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안용덕 >>** 경기도는 한우정책에 있어 단순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기반마련과 실질 지원에 힘쓰고 있다.

‘개량사업’이 가장 대표적인데 한우 혈통등록, 초음파 생체단층촬영, 선형심사, 암소검정, 우량암소 육성, 고등등록우 지원, 수정란이식, 유전체 분석 등 한우 개량과 우수개체 선발·생산을 위한 사업이다. 이중 2021년도부터 도입한 ‘유전체 분석’은 한우의 외모부터 유전자 정보까지 데이터베이



## 한우농가 조사료 생산장비 확충 생산기반 확대 절실

### 조사료 보관시설 지자체 지원 등 문제해결 적극 동참

스로 축적해 활용함으로써 향후 개량 촉진, 한우 수급 조절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율사업’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 품목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농가가 희망하는 품목을 시군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업이다. 올해 지원 품목으로는 송아지 설사 면역증강제, 사물인터넷(IoT) 기반 번식우 관리 시스템, 임신진단키트, 한우헬퍼, 친환경 급수기, 환풍기, 지하수 정수시설 등 실제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들을 준비했다.

**이연목 >>**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이 크다. 경기도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올해 신설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안용덕 >>** 우선 한우 수급 조절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2021년부터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함께 추진 중에 있는 우군 유전체 분석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해당 사업은 한우 암소 3,000여 마리에 대해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장에 보급·컨설팅을 실시해 초우량 우군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전체 분석은 표현형 성적이 없는 개체에 대한 조기 선발 및 도태 기준을 확립할 수 있어 정예화된 우군으로 효율적으로 농장을 운영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급변하는 대내외 사육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개체별 체형 및 생산형질의 유전체 유전능력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개체별 능력에 맞는 맞춤형 계획교배용 정액을 선정하여 우량 후대를 생산해 개량하는 척도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경기도는 유전체 분석 사업 활용의 한 형태로 저능력 개체로 평가된 (C,D등급)의 소를 도태 시킬 경우 도태 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 수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화식 배합기’ 지원사업을 강조하고 싶다. 화식이란 쇠죽을 끓여 먹이던 전통 방식에, 현대기술(TMR)을 접목해 쌀겨 등 부산물 원재료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식은 ①쌀겨, 볶짚 등 부산물 이용으로 배합사료 보다 원재료 값이 저렴, ②1등급 이상 출현율이 높고 고기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 ③분뇨 악취가 저감되고 발효가 잘되 퇴비 활용이 용이, ④면역력 상승으로 약품비 등 절감, ⑤사료가격 변화에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 ⑥반추위 발달로 영양소 흡수율이 일반사료보다 높음 등 여러 장점이 열거돼 있다. 대당 1억2000만 원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가격이나

50%의 보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연목 >>** 경기도 한우농가들은 경기도 정책 덕분에 한우가격이 지탱된다고 말할 정도로 정책에 만족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급식이다. 1년에 2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소요해 학교급식에서 한우를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우 가격을 유지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안용덕 >>** 한우 농가를 위한 실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인천경기도 지회 등을 통해 농가의 이야기를 듣고 개량에 있어서도 농가에게 가장 필요한 개량에 초점을 두고 종축개량협회와 암소 개량이나 우량암소 육성 유전체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송아지 생산 면역증강제, 임신 키트, 한우 헬퍼 지원도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실제로 원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연목 >>** 조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비 상승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가 임진강변쪽에 조사료단지 등을 조성하고 조사료 생산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현재 농가들에게는 조사료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조사료 생산 장비 등을 확충해 조사료 생산기반이 확대됐으면 한다.

**안용덕 >>** 이전에 파주 1사단과 김포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 등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유휴지를 활용해 조사료 생산을 추진한 바 있다. 한강변 유

휴지에서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군부대의 보안과 안전,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업은 멈춰있는 상황이다. 조사료의 경우 생산지가 호남권에 다발 위치해 있어 물류비 등의 문제로 경기도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해 다시 조사료 생산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연목 >>** 한우 생산비 40% 이상이 사료비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달러 환율 상승, 원자재·물류 가격상승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사료와 조사료 가격이 급등했다. 코로나 19 특수 등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하던 한우 가격마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최근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한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우 농가 경영 악화는 결과적으로 사육 포기,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우협회에서 실시한 사육 의향 조사에서도 사료가격이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사육을 포기하겠다고 한 농가가 응답자의 35%라는 결과도 있었다. 사료는 한우 산업에 있어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안용덕** >> 경기도는 도시화가 진행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국·공유지, 군부대 유휴지 등을 적극 활용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또한 경기도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자부담 일부를 보조하면서 벼짚사일리지 비닐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 향후,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ha당 80만원의 보전금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국공유지 283ha를 조사료 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이연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락작물작물제를 실시하면서 논에 전락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 준다고 하더라.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하는데 농가들의 관심이 높다. 사실 조사료는 경기도에서 큰 문제다. 전북 고창에서 조사료를 받고 있는데 6만원 하던 벼짚 한 롤이 10만원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안용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논 하계조사료 7,000ha를 확보,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 ha당 430만원을 지급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가도 지난해 톤당 6만원에서 올해 톤당 6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조사료 전문단지 면적도 매년 1,000ha를 확대해 조사료 생산을 늘린다고 했다. 농가들이 실제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작물재배 요건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단작으로 재배할 때와 이모작이 다르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연목** >> 남양주는 조사료 보관시설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더라. 남양주시에서 운반비 보조를 하고 지역축협 지원과 자부담으로 구매한다.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주면 조사료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안용덕** >> 남양주는 지리적 여건상 그런 정책이 더욱 가능하다고 본다. 더욱 신경쓰고 고민해 보겠다.

**이연목** >> 최근 한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송아지를 550만원에 사서 20개월 키워서 마이너스 나는 꼴이다. 도매와 소매의 가격 연동이 안되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의 중간마진은 그대로고 소비자들은 한우가격이 내려간 것을 체감하지 못해 소비가 안되니 악순환이다.

**안용덕** >> 코로나19에 국제 정세 등 어려운 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까지 위축돼 농가들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 정부차원의 소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소비촉진 할인행사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육마릿수가 과잉이기 때문에 한우농가들 스스로도 마릿수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경기도에서도 한우산업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연목** >> 경기도가 학교급식 등에 한우를 지원하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앞서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유통업체에는 한우 불고기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데 학교급식으로 돌려 아이들이 불고기를 먹으면 재고가 소진되면서 전체적인 소비를 뚫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 보조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데 좀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면 좋겠다. 한우 마릿수가 많다고 해도

자급률이 40%도 안된다.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고 우리 땅에서 자란 한우를 먹으면 좋을 것 같다.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성공모델로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안용덕** >> 최근 현안은 무엇보다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과 사료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한우 '수급 조절'과 농가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던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이런 기회를 빌어 현장농가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정책적 개발에 노력하겠다.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 한우농가들이 함께 합심해 노력하기를 당부드린다.



이달의  
한우인

## 한우산업 '골든타임' 사수 경영 안정화 입법지원 앞장

박덕흠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 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난해 12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소 농해수위 위원으로 축산농가들은 물론 한우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박 의원을 한우인들의 감사함과 염원을 담아 '이달의 한우인'으로 선정한다.

### Q 한우산업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한우산업 종사자 수는 35만 7,000명 정도이고 산업 규모는 약 13조1,500억원, 생산액은 약 5조7,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의 80% 이상을 한우 농가가 차지하며 한우 산업은 농촌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시로 되돌아가는 역귀농 이유로 '소득 부족(37.8%)'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농·어촌 인구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촌에서 적정 수준의 수입을 벌어들이지 못하

1963년 '축산법' 제정 이후 여러차례 개정 불구  
바뀐 축산환경 반영하지 못했다는 현장 지적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



로 전년 대비 8만두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물량 증가로 한우 도매 가격은 하락 국면에 진입해 지난 해 10월 이후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1월에는 설 성수기에도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한우 가격 하락

면 도시로 재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장에서는 "한우가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고, 농촌이 무너지면 청년 농민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우 사육을 단순히 농촌의 경제 활동 방법 중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 정책과 대한민국의 농업 지속가능성 측면으로 확대하여 활성 방안을 고민하고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사육마릿수 증가로 현재 95만두인 도축마릿수가 2024년까지 100만 마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농업연구기관 GS&J 역시 한우고기 도매가격과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 수익성 악화로 한우 사육 농가가 폐업하는 등 한우산업이 장기적으로

### Q 한우가격이 최저가를 기록하며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도매 가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우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산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올해 한우 사육마릿수가 358만두로 역대 최고치에 도달하고, 도축물량은 95만두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우 수요를 촉진하고 농가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한우농가와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한우고기 가격과 사육 규모를 달성하고, 한우 산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회도 예산이나 입법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 Q 한우산업의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021년 미국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USA 투데이에 ‘한국 한우가 지구상 최고의 고기가 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적 있습니다. 글쓴이는 한우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 고유의 소 품종으로 소개하고 고유의 맛과 풍미, 쫄깃한 식감을 가진 ‘매우 매력적인 맛’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적절한 지방과 단백질 배합으로 부드럽고 좋은 식감을 가진 한우의 맛 경쟁력은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확산된 한류 열풍으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점 역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한우 수출 의지에 따라 2015년 12월 한우 수출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수출체계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한우를 수입하는 곳은 홍콩, 중국 등 일부 국가이고, 일본의 고베나 와규처럼 국제적으로도 알려지지 않은 점 역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한우 수출에 대한 조정, 계획을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질병, 검역, 대외관계 등의 변화에 따른 위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Q 한우산업이 빠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으로 이를 위해 정부가 한우 수급 및 가격 안정, 질병 관리, 수출 정책 등 경영 안정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산업이나 그렇듯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장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노력 역시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쏟아내더라도 한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



### 자국의 농축산업 보호 육성 ‘세계적 추세’ 한우수급-가격안정, 질병관리, 수출정책 등 ‘한우농가 경영 안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가 없다면 무용지물인 법입니다. 사육 농가 역시 스스로 한우산업의 주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암소감축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규모 농가들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도 정부가 한 번의 정책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측과 예측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한우 사육마릿수를 관리하고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Q 한우산업발전법을 공동발의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1963년 ‘축산법’이 제정되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외국 시장 개방, 환경과 질병문제, 스마트농업, 수급 불안 등 과거에 비해 축산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자국의 농업을 보호 육성하고, 식량안보에 대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일본은 축산업 축종별로 법률을 세분화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축산업 내 양봉, 말, 곤충, 양잠 등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는 등 농축산업에서

품목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2026년 미국산 쇠고기에 2028년 호주산 쇠고기 관세가 철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보호하고 한우 소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축산의 중심 한우산업이 어떠한 대내외적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우개량과 유전자원 보호, 정부의 한우 수급대책, 한우 농가의 소득 보장 등을 반영한 ‘한우산업 기본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하게 돼서 공동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 Q 한우농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육식 문화가 다양해지고 수입 소고기가 증가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우는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고급육으로서 프리미엄급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축적된 노하우와 성실함으로 한우의 품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온 현장의 한우 농가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우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철농장  
이상규 대표

### 대한한우 사료 농가를 찾아서

## 생산비로 시작... 이제는 성적까지 대한한우 사료로 '끌어 올려~'

어려서부터 농사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완주에서 나고 자란 금철씨는 어른이 돼 도시로 가서 직업을 얻고 결혼을 했다. 아내는 농사꾼 보다는 도시생활자로 살기를 원했다. 금철 씨는 집에서 부르던 아명을 버리고 호적에 있는 이상규 씨로 통신업에 종사했다. 십수년 동안 월급을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면서도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꿈을 버리지 못했던 이상규 씨는 고향 완주를 오가며 헐값에 나온 땅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완주에 1만3,200㎡ 땅을 사 한쪽에는 우사를 짓고 다른 한쪽에서는 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암소 4마리로 시작한 농장은 어느덧 70마리 한우농장이 됐다.

어릴 적 꿈을 이룬 이상규 씨는 농장이름을 어릴 적 아명인 금철로 지었다. 이상규 금철농장 대표가 이룬 평생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완주로 가 보자.

### 12년 동안 전주에서 완주까지 하루 두 번 왕복

“전주에서 통신업에 종사했는데 바듯한 월급이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 모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직장을 다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에 가서 꼭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조금 모인 이상규 대표는 고향인 완주를 오가며 땅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수년간 수소문한 끝에 지금의 농장터에 자리를 잡고 2007년 한우 우사를 지었다. 암소 4마리를 입식하고 벼농사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전주에서 완주까지 하루 두 번 왕복 출퇴근이 시작됐다.

“새벽에 일어나서 완주에 와서 소 밥을 줬어요. 그리고는 전주 직장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바로 완주로 와서 소 밥을 주고 농장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사에 들러 소를 돌봤지만 하루 종일 소와 함께 있지 않으니 새끼를

잃을 때도 더러 있었다. 그렇지만 하루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전주와 완주를 오가며 소를 키웠다.

“힘들었죠. 매일 농장과 회사 두군데로 출퇴근했어요. 농장에서 퇴근하면 회사로 출근하고 회사에서 퇴근하면 다시 농장으로 출근하는 생활을 십년이 넘게 했지요. 그렇지만 어릴 적 꿈을 이룬다는 생각에 항상 더 부지런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십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실했던 꿈을 향한 그의 의지는 가족 모두를 감동시켰다.

한우를 키우는 것에 자신이 생기고 한우산업에 미래가 있다는 생각에 2019년 전업농이 되기로 결심하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축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모든 가족이 환영했다. “2019년에 신축사를 짓고 한우전업농으로 전향했습니다. 벼농사도 그만두고 축사를 넓혀 한우 마릿수를 늘렸습니다. 4마리로 시작한 농장인데 지금은 한우 70마리 정도 되니까 제가 부듯하죠.”



66  
힘들고 허실 많은 포대사료보다 편리  
대한한우 벌크사료, 육성우 사료빈도 계획

완주-전주 오가며 10년 넘게 소 키워  
2세와 함께하는 한우농장을 꿈꾸다

99

## 4마리에서 70마리까지, 내손으로 직접

암소 네 마리로 시작해 한우 70마리 농장이 될 때 까지 이 대표는 두 세 번 정도만 우시장에서 소를 사왔다. 소를 사서 마릿수를 늘린 것은 고작 십여마리 정도. 나머지는 모두 암소가 낳은 송아지를 키워 목장 규모를 키웠다. “작은 규모일때는 그럭저럭 매꿔 나갔는데 규모가 커지니 힘이 들더라구요. 그래도 우시장에서 소는 몇 번 안사왔어요. 제가 키운 암소가 낳은 송아지로 마릿수를 불려나갔습니다. 거세우를 팔면 그 돈으로 암소를 사고 하면서 계속 마릿수를 늘려나갔습니다.”



축산전공자도 아니고 소를 키운지 오래됐어도 전업농으로의 경력은 짧은 이 대표는 주위 농가들에게 듣고 현장에서 보며 사양기술을 익혔다.

“임신우에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맞춥니다. 그러면 잔병치레가 없고 송아지도 설사병이 덜하더라구요.”

## 대한한우사료로 농가 생산성 끌어올려

“대한한우사료는 출시 초기부터 바로 썼어요. 사료가 싸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리고 한우협회가 만든다는데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생산비가 줄면서 이 대표는 신이 났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한우사료를 먹고 자란 소들의 최근 성적이 매우 좋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전보다 성적이 좋아졌어요. 얼마전에 출하한 암소도 1\*등급이 나왔습니다. 대한한우사료는 생산비 때문에 먹이기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벌크로 사료를 받으면서 사료포를 뜯어 급이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허실도 적어 좋다는 이 대표는 사료빈을 하나 더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벌크로 사료를 가져와 빈에서 받아 사용하니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구요. 사료포를 뜯을 때는 아무래도 무게도 있고 쓸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포장을 열어 힘으로 이동해야 하니 힘도 들고 허실도 많았습니다. 지금 번식우만 벌크로 받아 사료빈에 저장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료빈을 하나 더 설치해서 육성우도 벌크로 받아 사용하려고 합니다.”



## 2세와 함께하는 한우농장 꿈꾸다

성실하다는 칭찬밖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 대표는 12년을 하루같이 전주와 완주를 왕복하며 소를 키워왔다.

“다들 대단하다고 힘들겠다고 하죠. 그런데 소가 새끼를 낳는 것을 보면 지루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4년 전부터는 전업농으로 전향해 벼농사도 모두 접고 오로지 한우에만 골몰하고 있다.

“소가격 파동도 있었고 힘들었죠. 지금도 많이 힘들죠. 그래도 저는 한우산업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 논을 담보로 대출해서 축사를 신축했는데 한우 전업농을 하다 보니 자식에게 물려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축사 옆 논에서 논농사를 짓다가 신축 우사를 지으려는 계획으로 논을 흙으로 메꾸고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한 차에 10만 원씩 흙을 사다가 100트럭 정도는 논에 매꿔

축사 부지를 만들었어요. 신축사를 지으려고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아들에게 한우를 키워보라고 할 생각입니다.”

한우산업의 위기가 닥친 지금 축사를 늘리고 한우를 더 입식하겠다는 이 대표에게 만류하는 지인도 있지만 이 대표는 지금까지 한우가 가장 진실하게 자신에게 보답했다고 생각한다. “아내도 완주로 함께 내려와 간간히 농장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우에 쏟는 애정을 보면서 가족들도 한우에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한우산업의 위기요? 빛을 내서라도 한우농장 할 겁니다. 저는 한우를 키우는 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완주군지부 축산자재창고 준공

# 한우협회 대한한우사료 공동구매 숙원사업 지역한우농가 생산비 절감...한우산업 발전



## 12m 도크 설치 톤백 이동·운반 용이하게 3톤 지게차, 대형 크레인 등 벌크사료 운반

완주군지부가 지난 2월 23일 전북 완주군 서봉리 29번지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서남용 완주군의장, 김삼주 회장, 정윤섭 전북도지회장, 유용준 완주군지부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자재창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완주군지부는 한우협회 사료공동구매에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었던 축산자재창고 건립을 통해 지역한우농가들의 생산비 절감과 한우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완주군지부 축산자재창고 준공식의 이모저모와 향후 축산자재창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조망해 봤다.

## 총 6억원 투입, 참여업체만 7곳

완주군지부는 2021년 1월 15일 축산자재창고 용 토지를 구입하고 지난해 5월 13일 건물 착공식을 가진 후 지난해 12월 23일 축산자재창고 준공을 완료했다.

완주군과 전라북도에서 3억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도비 18%와 군비 42%, 자부담 40%로 진행된 축산자재창고는 총 6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등 생산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우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한우농가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 축산자재창고 건립으로 지역 한우 농가들에게 공동이용창고로 이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지 2557㎡(775평), 건평 495㎡(150평)으로 12m의 도크가 설치돼 벌크사료용 톤백 등의 이동·운반이 용이할 전망이다. 3톤 지게차와 대형 크레인 등으로 벌크사료용 운반을 최우선하겠다는 계획이다.



## 지역 한우 농가들 공동이용창고 이용도 제고 기대





### 준공 기념식기점...완주한우산업발전 '총력'

완주군지부는 지난 2월 23일 걸출한 내외빈과 완주군 한우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신축 축산자재창고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함께 축산자재창고 건립에 애써준 내빈들을 향한 감사의 말이 이어졌다. 특히 완주한우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완주군의 한우산업을 위해 애써온 조영호 청정농장 대표 등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본인들이 극구 사양해 호명 후 인사만 하는 훈훈한 장면도 이어졌다.

김삼주 회장은 “최근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적극적인 생산비절감 노력과 선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완주군 축산자재창고 준공을 계기로 완주군 한우농가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미니인터뷰



유용준  
완주군지부장

### 대한한우 사료-건초-톱밥 '공동창고' 이용 다양한 사업 마련...회원농가 경영비 절감

“완주군지부는 600여 한우농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산자재창고 준공을 통해 완주군의 한우협회 회원농가들이 조금이라도 경영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할 것입니다.”

완주군은 대한한우 사료를 가장 많이 쓰는 지역이다.

“완주군에 소가 3만7,000마리 정도 되는데 한우협회의 대한한우사료 이용율이 높습니다. 사료가 싸고 등급이 잘 나오는데 안 쓸 이유가 없지요.”

유용준 완주군지부장은 축산자재창고에 사료와 건초, 톱밥 등을 중심으로 적재해서 공동창고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가격은 하락하고 생산비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작금의 위기 속에서는 경영비 절감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건초, 사료 등을 직접 창고에 적재하고 마진을 보지 않고 농가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특별인터뷰

유희태 완주군수



##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소 발효사료 제조시설 구축 모색

“한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축산자재 공동이용창고를 개

사료 공동구매 연중 안정적 사용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 도움 되길

를 추진하는데 완주군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 군수는 한우농가들이

장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번 축산자재 공동이용창고에는 완주군에서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전체의 40%가 넘는 군비가 투입됐습니다. 부디 농가들이 사료를 공동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연중 안정적으로 사용해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산자재창고 준공식에서 만난 유희태 완주군수는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을 심분 이해하며 한우산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요즘 한우산업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 완주군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완주군의 적정 한우 사육마릿수는 2만9,000마리 정도인데 현재 3만7,000마리 정도가 사육 중에 있습니다. 완주군만해도 한우 사육마릿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유 군수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완주군이 다양한 한우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저능력 암소를 조기 도태하거나 미경산우로의 비육을 지원해 사육 마릿수 감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공공급식에 한우 식재료를 공급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한우 답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해 적극적으로 한우 소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관내 가축분뇨처리업체에 완주군의 우분을 우선 처리하도록 협의해 가축분뇨 처리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유 군수는 발효사료를 급이했을 때의 특징점을 설명하며 이를 완주군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발효사료를 급이하면 한우 등급이 상승해 농가들의 경영효율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분뇨발생이 감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따라서 완주군에서는 발효사료 제조시설 구축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유 군수는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한우농가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완주군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우농가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완주군의 한우농가들과 한우협회에서도 자율적으로 사육 마릿수를 줄이는 등 완주군의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축산자재창고 개장을 기점으로 완주의 한우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 한우동향분석 2023.2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 【한우사육】 2023년 1월 한우 사육마릿수 및 가임암소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2.14% 증가, 전월 대비 1.18% 감소
- 가임암소 전년 동월 대비 2.28% 증가, 전월 대비 1.01% 감소
- 연령별 사육두수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 2.26% 감소, 1세~2세 4.48%, 2세 이상 3.38% 증가



## 【등급판정】 1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 1등급 이상 출현율 75.9%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 감소
- 1\*\*등급 : 26.7%, 1\*등급 : 25.2%, 1등급 : 24.0%



## 【도매 및 산지가격】 1월 한우 도체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하락, 큰 소 및 (6~7개월령) 송아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 하락

- 한우 큰 소(600kg) 암소 가격 전년 동월 대비 25.8% 하락, 전월 대비 6.5% 하락(수소는 34.3%, 14.3% 각각 하락)
- 한우 암송아지(6~7개월령) 가격 전년 동월 대비 31.9% 하락, 전월 대비 1.9% 하락(수송아지는 26.6%, 7.1% 각각 하락)



## 【배합사료·정액판매】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정액 판매량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1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1.69% 증가
- 1월 정액 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20.4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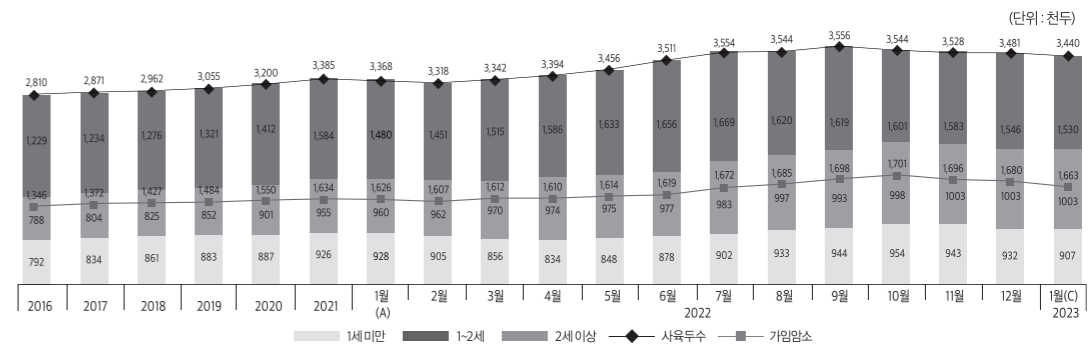
## 【쇠고기 수입】 1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9.1% 감소, 전월 대비 15.9% 증가

- 전월 대비 냉동육 수입 13.4% 감소, 냉장육 21.4% 감소

## 1. 한우 사육 동향

◎ 2022년 11월 한우 사육두수 및 가임암소 두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소 한우 수급 안정화 및 가격 하락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암소 자율 감축 필요

- 2023년 1월 한우 사육마릿수 및 가임암소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한우 수급 안정화 및 가격 하락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암소 자율 감축 필요
- 한우 사육마릿수는 344만 마리로 전년 동월(336만 8천 마리) 대비 2.14%(7만 2천 마리) 증가, 전월(348만 1천 마리) 대비 1.18%(4만 1천 마리) 감소
- 가임암소는 166만 3천 마리로 전년 동월(162만 6천 마리) 대비 2.28%(3만 7천 마리) 증가, 전월(168만 마리) 대비 1.01%(1만 7천 마리) 감소
- 연령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2.26%(2만 1천 마리) 감소, 1~2세는 4.48%(4만 3천 마리), 2세 이상은 3.38%(5만 마리) 증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소이력관리현황

【그림 1】 가임암소 연령별 두수 현황

- 사육 농장수는 87,160농장으로 전년 동월(89,378농장) 대비 2.48%(2,218농장) 감소, 전월(87,470농장) 대비 0.35%(310농장) 감소
- 농장 당 사육마릿수는 39.5마리로 전년 동월(37.6마리) 대비 5.05%(1.9마리) 증가, 전월(39.8마리) 대비 0.75%(0.3마리) 감소

【표 1】 한우 사육 현황

(단위 : 호, 천두, %, 두)

구분		농장수	사육두수	가임 암소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21		89,423	3,312	1,578	88.2	873	931	1,508	36.9
2022	1월(A)	89,559	3,368	1,626	61	928	960	1,480	37.6
	2월	89,378	3,318	1,607	58.2	905	962	1,451	37.1
	3월	89,378	3,342	1,612	44.1	856	970	1,515	37.4
	4월	89,343	3,394	1,610	87.7	834	974	1,586	38.0
	5월	89,242	3,456	1,614	89.5	848	975	1,623	38.7
	6월	89,153	3,511	1,639	78.6	878	977	1,656	39.4
	7월	89,016	3,554	1,672	66.5	902	983	1,669	39.9
	8월	88,633	3,544	1,685	46.8	933	991	1,620	40.0
	9월	88,471	3,556	1,698	41.2	944	993	1,619	40.2
	10월	88,137	3,544	1,701	34.1	945	998	1,601	40.2
	11월	87,784	3,528	1,696	32.4	943	1,003	1,583	40.2
	12월(B)	87,470	3,481	1,680	31.7	932	1,003	1,546	39.8
2023	1월(C)	89,559	3,368	1,626	61	928	960	1,480	37.6
증감 률	전년동월(C/A)	△2.48	2.14	2.28	△4.75	△2.26	4.48	3.38	5.05
	전월(C/B)	△0.35	△1.18	△1.01	89.59	2.68	0.00	△1.03	△0.75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2023년 1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 1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는 88,073마리로 전년 동월(101,123마리) 대비 12.9%(13,050마리)

감소, 전월(96,880마리) 대비 9.1%(8,807마리) 감소

- 성별비율은 암소 47.6%, 수소 0.9%, 거세우 51.4%

\* 전월대비 : 암소 1.2%p↑, 수소 0.5%p↑, 거세우 1.8%p↓, 거세울 0.94%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두수

(단위 : 두,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울
전년누계 (’22.1.~1월)	101,123	43,389	1,107	56,627	98.1
	100.0	42.9	1.1	56.0	
금년누계 (’23.1.~1월)	88,073	41,961	804	45,308	98.3
	100.0	47.6	0.9	51.4	
전년동월 (’22.1월)	101,123	43,389	1,107	56,627	98.1
	100.0	42.9	1.1	56.0	
전월 (’22.12월)	96,880	44,958	419	51,503	99.2
	100.0	46.4	0.4	53.2	
당월 (’23.1월)	88,073	41,961	804	45,308	98.3
	100.0	47.6	0.9	51.4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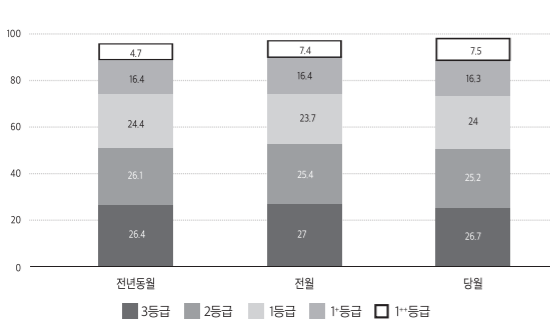
◎ 1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75.9%, 전년 동월 대비 0.9%p 감소, 전월 대비 0.1%p 감소

○ 1월 1등급 이상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26.7%, 1\*등급 25.2%, 1등급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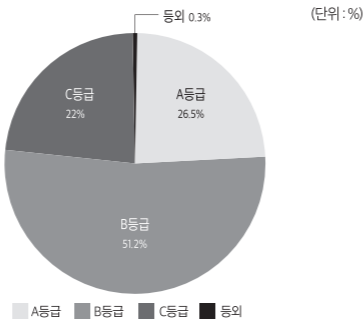
-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6.0%) 대비 0.1%p↓, 1\*\*등급 0.3%p↓, 1\*등급 0.2%p↓, 1등급 0.3%p↑

- 전년 동월(76.8%)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0.9%p↓, 1\*\*등급은 0.3%p↑, 1\*등급 0.9%p↓, 1등급은 0.4%p↓

- 전년 누계(76.8%)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0.9%p↓, 1\*\*등급은 0.3%p↑, 1\*등급 0.9%p↓, 1등급은 0.4%p↓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단위 : %)

[그림 3]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좌) 및 육량 등급 출현율(우)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p)

구분	판정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2021	794,238	23.8	25.8	25.3	74.9	17.5	7.3	24.4	52.4	23.0	0.3
2022	869,147	25.6	25.3	24.3	75.2	17.0	7.6	27.0	52.0	20.7	0.2
2022	1월(A)	101,123	26.4	26.1	24.4	76.8	16.4	4.7	22.9	52.3	0.1
	1~1월(B)	101,123	26.4	26.1	24.4	76.8	16.4	4.7	22.9	52.3	0.1
2023	'22.12월(C)	96,880	27.0	25.4	23.7	76.0	16.4	7.4	27.4	51.3	0.2
	1월(D)	88,073	26.7	25.2	24.0	75.9	16.3	7.5	26.5	51.2	0.3
	1~1월(E)	88,073	26.7	25.2	24.0	75.9	16.3	7.5	26.5	51.2	0.3
전월대비(D-C)		△8,807	△0.3	△0.2	0.3	△0.1	△0.1	0.1	△0.9	△0.1	0.9
전년동월대비(D-A)		△13,050	0.3	△0.9	△0.4	△0.9	△0.1	0.8	3.6	△1.1	△2.7
전년누계대비(E-B)		△13,050	0.3	△0.9	△0.4	△0.9	△0.1	0.8	3.6	△1.1	△2.7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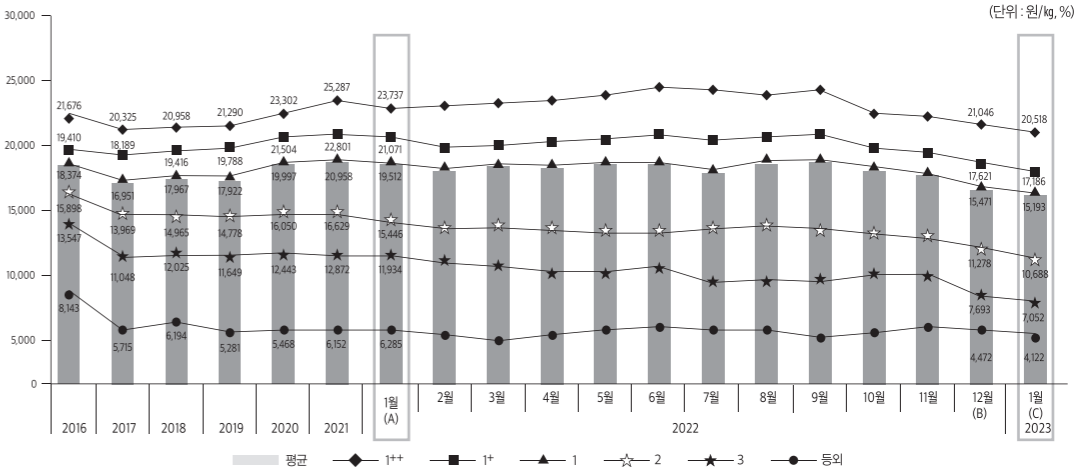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2023년 1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하락

○ 1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15,193원/kg)은 전년 동월(19,512원/kg) 대비 22.1%(4,319원/kg) 하락,

전월(15,471원/kg) 대비 1.8%(278원/kg) 하락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5,904원/kg)은 전년 동월(19,972원/kg) 대비 20.4%(4,068원/kg) 하락, 전월(16,397원/kg) 대비 3.0%(493원/kg) 하락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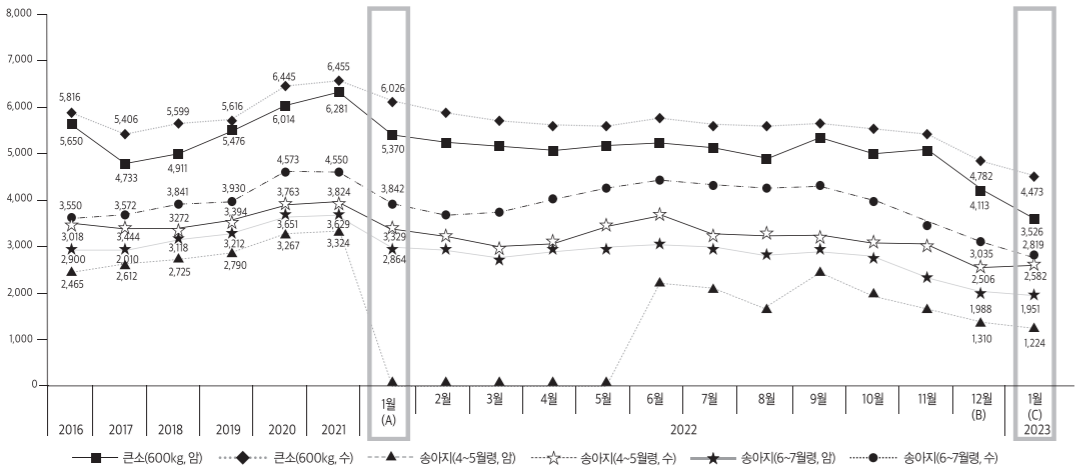
◎ 1월 한우 산지가격 큰 소 및 (6~7개월령) 송아지 모두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하락

- 1월 큰 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4,473천원으로 전년 동월(6,026천원) 대비 25.8%(1,553천원) 하락, 전월(4,782천원) 대비 6.5%(309천원) 하락
  - 수소의 경우 3,526천원으로 전년 동월(5,370천원) 대비 34.3%(1,844천원) 하락, 전월(4,113천원) 대비 14.3%(1,844천원) 하락
- 1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1,951원으로 전년 동월(2,864천원) 대비 31.9%(913천원) 하락, 전월(1,988천원) 대비 1.9%(37천원) 하락
  - 수송아지의 경우 2,819천원으로 전년 동월(3,842천원) 대비 26.6%(1,023천원) 하락, 전월(3,035천원) 대비 7.1%(216천원) 하락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5,468	19,891
2021		25,287	22,801	20,958	16,629	12,872	6,152	21,155
2022	1월(A)	23,737	21,071	19,512	15,446	11,934	6,285	19,972
	12월(B)	21,046	17,621	15,471	11,278	7,693	4,472	16,397
2023		1월(C)	20,518	17,186	15,193	10,688	7,052	15,904
증감율	전년동월(C/A)	△13.6	△18.4	△22.1	△30.8	△40.9	△34.4	△20.4
	전월(C/B)	△2.5	△2.5	△1.8	△5.2	△8.3	△7.8	△3.0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주 : 2020년 송아지(4~5월령)의 경우 3월과 5월은 코로나로 인한 가축시장 임시폐쇄로 가격자료 없음

[그림 5] 한우 산지가격 추이(전국)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2021		6,455	6,281	3,324	3,824	3,629	4,550
2022	1월(A)	6,026	5,370	-	3,329	2,864	3,842
	2월	5,882	5,148	-	3,198	2,862	3,640
	3월	5,701	5,154	-	2,893	2,735	3,683
	4월	5,600	4,967	-	3,048	2,868	4,001
	5월	5,521	5,163	-	3,379	2,907	4,208
	6월	5,753	5,193	2,278	3,547	2,994	4,407
	7월	5,551	5,053	2,050	3,158	2,898	4,266
	8월	5,511	4,801	1,630	3,217	2,776	4,210
	9월	5,621	5,317	2,400	3,147	2,859	4,251
	10월	5,538	4,944	2,001	3,045	2,686	3,904
	11월	5,391	5,016	1,553	3,018	2,329	3,429
	12월(B)	4,782	4,113	1,310	2,506	1,988	3,035
2023	1월(C)	4,473	3,526	1,224	2,582	1,951	2,819
증감율	전년동월(C/A)	△25.8	△34.3	-	△22.4	△31.9	△26.6
	전월(C/B)	△6.5	△14.3	△6.6	3.0	△1.9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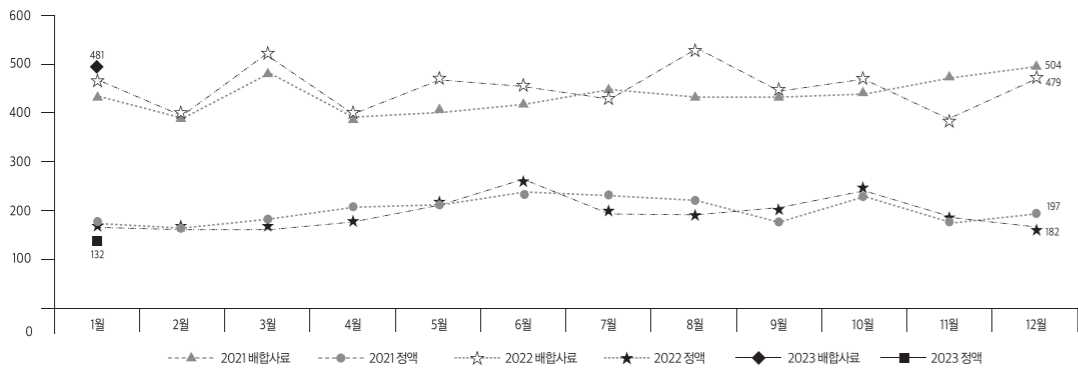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 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 2023년 1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 1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81천 톤으로 전년 동월(473천 톤) 대비 1.69% (8천 톤) 증가
- 1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132천 str로 전년 동월(166천 str) 대비 20.48% (34천 str) 감소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그림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 사료	2021	442	406	490	406	423	435	451	444	451	453	482	504	5,387
	2022	473	417	514	418	485	453	436	529	458	478	409	491	5,561
	2023	481												482
정액	2021	172	162	179	209	209	233	226	214	183	220	170	197	2,374
	2022	171	171	171	183	206	233	199	192	202	220	176	162	2,281
	2023	132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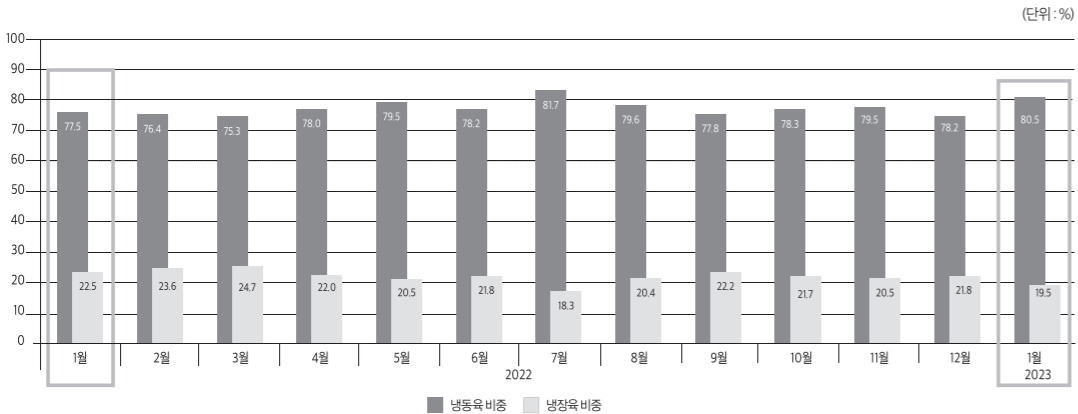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 5.

### 최고기 수입현황

◎ 2023년 1월 최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 1월 최고기 수입량은 3만 5,649톤으로 전년 동월 3만 9,218톤 대비 9.1%(3,569톤) 감소, 전월 4만 2,367톤 대비 15.9%(6,718톤) 감소
- 전월 대비 냉동 최고기 13.4%(4,446톤) 감소, 냉장 최고기 21.4%(2,271톤) 감소



자료 :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7] 수입최고기 냉동육과 냉장육 비중 변화 추이

- 1월 부위별 최고기 수입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양지 24.2%(1,795톤), 등심 19.3%(767톤), 기타 8.7%(905톤), 갈비 3.6%(436톤) 감소, 앞다리 6.3%(334톤) 증가
- 1월 국가별 최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미국산이 33.3%(8,482톤), 호주산 8.5%(1,316톤) 감소

[표 7] 최고기 수입 추이

(단위 : 톤, %)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20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32,490
2021		452,792	333,412	119,381	153,481	65,331	60,625	46,948	126,407	254,874	160,117	37,801
2022	1월	39,218	30,375	8,843	12,121	7,403	5,285	3,964	10,445	15,987	17,969	5,262
	2월	34,349	26,232	8,117	13,150	6,485	4,737	2,640	7,337	22,977	8,291	3,081
	3월	39,926	30,050	9,876	14,508	8,339	4,291	3,412	9,376	23,943	11,821	4,162
	4월	36,355	28,367	7,988	14,449	7,439	4,073	2,940	7,454	21,141	9,854	5,360
	5월	44,669	35,532	9,137	16,877	9,480	4,641	3,490	10,181	24,545	13,732	6,392
	6월	37,607	29,390	8,217	15,550	6,572	3,715	3,192	8,578	20,800	11,886	4,921
	7월	43,249	35,349	7,900	16,485	7,127	4,039	3,724	11,874	23,725	14,837	4,687
	8월	42,067	33,486	8,581	14,041	6,418	4,681	4,186	12,741	21,558	16,452	4,057
	9월	44,062	34,293	9,769	15,137	5,904	5,168	4,172	13,681	23,894	16,036	4,132
	10월	36,159	28,305	7,854	13,245	5,218	4,209	2,975	10,512	19,297	14,391	2,471
	11월(B)	36,726	29,203	7,523	14,530	6,356	4,323	3,339	8,178	22,093	11,302	3,331
	11월(B)	42,367	33,141	9,226	15,533	7,474	5,079	3,118	11,163	25,504	15,513	1,350
	누계	476,754	373,723	103,031	175,626	84,215	54,241	41,152	121,520	265,464	162,084	49,206
2023	1월	35,649	28,695	6,955	11,685	5,608	5,619	3,197	9,540	17,022	14,187	4,440
	누계	35,649	28,695	6,955	11,685	5,608	5,619	3,197	9,540	17,022	14,187	4,440
증감률	전년동기(B/A)	△9.1	△5.5	△21.4	△3.6	△24.2	6.3	△19.3	△8.7	6.5	△21.0	△15.6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검사실적 순기보고'



# 미국, 육용우 계약정보 공개제도 시범 운용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국(USDA/AMS)<sup>1)</sup>은 12월 7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축·육가공기업에 의한 육용우 생산자와의 계약정보 보고 의무화와 USDA/AMS에 의한 공표를 규정하는 육용우 계약정보 공개제도(라이브러리)의 시험적 운용에 관한 최종 규칙을 공표
- ▷ USDA/AMS는 금년 4월 이후, 본 규칙의 책정을 향해서 육우·쇠고기 업계 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청취나 일반인 공청회 등을 실시해 왔으며, 본 규칙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

## 보고가 필요한 계약정보 및 월간 육용우 구입두수 개요

육용우 생산자와의 계약정보	
계약방법	서면 혹은 구두계약에 의한 특정기간 내의 육용우 구입계약방법
계약개시일 및 종료일	육용우 구입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계약 기준가격	조정, 증액, 감액을 적용하기 전의 온도체 지육중량 혹은 생체중량 100파운드당 가격
판매기준	구입하는 육용우의 기준
증액과 감액의 조건	계약기준 가격에서 증액 혹은 감액되는 조건
육용우 속성에 관한 조건	육용우의 품종, 거세우·미경산우 등의 속성에 관한 조건
운송조건	농장으로부터 소 도축·가공시설로의 육용우 수송에 관한 조건
용자, 손실분담, 이익분담 등 경제적 조건	소 도축·가공기업으로부터 육용우 생산자에 대한 용자, 손실 및 이익의 분배방법에 관한 조건
수량 규정	육용우 출하두수에 관한 조건
월간 육용우 구입두수	
전월 소 구입두수	보고월 전월의 계약에 의한 육용우 구입두수
당월 소 구입 예정두수	보고월의 계약에 따른 육용우 구입예정 최대 두수

자료 : USDA/ARS 'Cattle Contracts Library Pilot Program Final Rule'

1) USDA/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 미국 농무부의 농업마케팅국

## ■ 육용우 계약정보 공개제도(라이브러리) 최종 규칙 개요

- ▷ 쇠고기 도축·육가공기업에 의한 계약정보의 보고
  - 본 규칙에서는 최근 5년간 미국 내에서 도축된 육용우의 연간 평균 마릿수의 5% 이상을 취급한 쇠고기 도축·육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육용우 생산자와의 계약정보 및 월간 육용우 구입 마릿수를 USDA/AM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USDA/AMS에 따르면 미국 내 쇠고기 도축·육가공 시설의 약 85%가 보고 대상이 되며, 대상 쇠고기 도축·육가공업체는 신규 계약 체결, 기존 계약 변경 및 폐지 후, 1영업일 이내에 USDA/AMS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음
- ▷ USDA/AMS에 의한 계약정보의 공표
  - 쇠고기 도축·육가공기업으로부터의 계약정보 보고를 요청한 USDA/AMS는 농무장관의 지시하에 계약당사자를 포함한 개인정보나 기업기밀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칙에는 계약정보를 공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USDA/AMS에 의하면 이미 운용되고 있는 육돈 계약정보 공개제도(라이브러리)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할 예
- ▷ 덧붙여 육돈 계약정보 공개제도(라이브러리)에서는 계약 기준 가격, 판매기준, 증액·감액 조건 등의 계약 조건을 정리한 '계약 개요 리포트'와 향후 6개월간과 12개월간의 돼지고기 도축·육가공 기업의 육돈 구입 예정 마릿수를 정리한 '월간 리포트'의 2종류에 의해 계약정보를 공표하고 있음

- 전미육우생산자·우육협회(NCBA)<sup>2)</sup>는 본 규칙의 공표에 대해 “우리는 시장 투명성 향상을 위해 오랜 세월 노력해 왔으며 미 의회와 USDA가 육용우 생산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육우계약 공개제도(라이브러리)의 시험 운용에 이른 것은 기쁜 일”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힘



- ▷ 또 육용우 생산이 활발한 사우스다코타주 육우생산자협회(SDCA)<sup>3)</sup>도 “우리는 육우생산자나 육가공 업계에 대해 신규로 강제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에는 항상 반대한다.”
- ▷ “그러나 양돈업에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가 기능하고 있어, 육용우 계약공개제도(라이브러리)가 새로운 규제는 아니며 육용우 생산자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면서 일정한 이해를 보이고 있음

2) NCBA :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 미국의 소 축산업 및 소고기 제조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목적은 축산업자와 도축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적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 수요를 증진하는 데 있다. 1898년에 창립된 미국축산협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소를 판매시에 한 마리당 \$1씩 부과되는 판매세(Beef Checkoff)에 의해 재정을 충당

3) SDCA : South Dakota Cattlemen's Association



## 일본 마쓰사카우, '23년 수출 13배로 확대 계획

■ 일본의 명품 와규, 미에현산 마쓰사카우 수출이 2023년부터 단숨에 확대될 전망, 비육농가와 관련 지자체(시정촌<sup>4)</sup>)가 참여하는 '마쓰사카우협의회'의 수출부회 계획은 300마리분으로 2022년(24마리)의 13배

- ▷ 2월에도 관계 단체와의 최종 조정을 거쳐 정식으로 결정,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출하를 전망하고 있으며, 3월에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홍보 행사를 열 계획
- ▷ 마쓰사카우는 마쓰사카시와 그 근교에서 비육한,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암컷 흑모화우로 스테이크와 스키야키, 샤브샤브 용으로 선물과 고급식당에서 제공되고 있음
- 미에현 마쓰사카시 주변 농촌에서 연간 약 8천 마리가 출하되고 있음



마쓰사카우(松阪牛)는 미에현  
마쓰사카시 주변에서 사육되고 있는 와규<sup>5)</sup>

■ 80여 비육농가가 참여하는 협의회 중 '수출부회'에는 30여 생산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수출처는 주로 수출업체 요망에 따라 결정

- ▷ 수출용 300마리 중 200마리분은 내수용과 마찬가지로 소의 대부분 부위를 출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00마리는 스테이크용 등 인기 부위만 거래되는 미국용 등으로 충당하기로 함
- ▷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일본 고급 흑모화우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두바이에서는 3월 8일 현지 왕족과 정부 관계자, 유력 세프, 언론인 등 40여 명을 초청해 고기 한 마리를 대접할 계획

- ▷ 이슬람교에 따른 할랄 인증을 받은 식육 처리장에서 가공한 뒤, 현지에서는 고기를 잘라내는 방법을 시연하고, 스테이크와 불고기, 샤브샤브 등을 시식하게 됨, 이번 행사를 계기로 UAE에도 수출을 목표로 할 계획

■ 마쓰사카우는 테스트 출하를 제외하면 상업 수출은 21년도에 시작되었음, 국내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을 제한했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시기에 외식업체 수요가 크게 줄었음

- ▷ 도쿄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은 2020년 전반에, 그때까지 밀도는 일이 거의 없었던 kg당 3천엔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출에의 기운이 높아졌으며, 협의회에 '수출부회'가 생긴 것은 같은 해 8월
- ▷ 수출부회에서는 '마쓰사카우는 국내의 지명도는 매우 높지만, 수출 실적이 있는 코베(神戸)비프나 오오미우(近江牛)에 비하면, 국제적인 지명도는 낮다'라고 보고 있음
- 고베비프나오오미우의 관련 단체와 협력해 해외에서의 판촉이나, 가짜고기 유통 방지에 임하는 것도 시야에 넣고 있음
- ▷ 코베우는 2012년도부터 산지 전체가 합심하여 수출체제를 정돈하고 있는데, 효고현(兵庫県)에 의하면 2021년도의 수출 마릿수는 1,396마리
- 시가현(滋賀県)도 2010년도부터 오오미우의 수출을 시작해 동 현내의 식육 센터에서 처리되어 수출된 오오미우는 2021년도는 451마리였음

자료 : 일본경제신문(23.1.12)

## 일본 총리, 농림수산성에 배합사료 폭등대책 지시

■ 일본 정부는 24일 총리 관저에서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회의를 개최,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축산 농가가 부담하는 배합사료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비용 상승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보조금을 금년 1~3월에도 계속하도록 노무라 테츠로(野村哲郎) 농림수산 장관에게 지시

4) 우리나라의 시,군읍 정도에 해당하는 기초 지자체

5) 자세한 내용은 한우협회(전국한우협회·통계자료실·한우자료실) 발간, 한우이슈 제13호, 일본 마쓰사카우 스토리와 최신동향 (22.11.23) 참고



- ▷ 키시다 총리는 가축 먹이가 되는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대해 “축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료가격안정 긴급대책을 계속토록 지시
- 키시다 총리는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음, “배합사료가격 상승이 축산경영을 압박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축산물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농림수산 장관에게는 작년말 대책을 계속하여, 금년 1~3월기에 대해서도 배합사료 비용을 억제하기위한 추가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합니다”
- ▷ 가축먹이가 되는 배합사료가격은 엔저 등의 영향으로, 1톤당 10만엔 (1kg당 약 1천원) 정도 올랐음

■ 농림수산성은 작년 10월부터 12월분의 사료비용에 대해, 현행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에 의한 보조금’과는 별도로, 국산사료 생산 등의 노력을 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고 있음<sup>6)</sup>

- ▷ 가장 최근인 2022년 10~12월에는 동년 7~9월과 같은 수준의 가격으로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 일본정부는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이러한 대책의 계속하고, 보조금 금액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

■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앞서, 여당인 자민당 주최로 1월 17일 열린, ‘농림관계합동회의’에서 축산·낙농관련단체는 사료가격 폭등 대책을 요구한 바 있음

- ▷ 자민당 종합 농림정책조사회(회장: 에토 타쿠(江藤拓) 중의원<sup>7)</sup>의원), 식량안전보장에 관한 검토위원회(위원장: 모리야마 유타카(森山裕) 중의원 의원), 농림부회(회장: 타케베 신(武部新) 중의원 의원), 축산·낙농 대책 위원회(위원장: 이토 요시타카(伊東良孝) 중의원 의원)는 1월 17일,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사료 가격 급등에의 대책에 대해 축산·낙농 관계 단체로부터 요망을 청취
-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사료가격에 대해서는 기존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에 의한 보전과 더불어 작년 9월에 예비비를 재원으로 2022년도 제3분기에 긴급대책을 실시, 생산 비용의 삭감이나 사료 자급률의 향상에 노력하는 생산자의 사료 비용 상승분을 보충하는 긴급대책을 실시
- 그러나 여전히 곡물가격 급등 등으로 사료값의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어 올해 4분기에는 생산자의 실 부담액이 사료 1톤당 약 1만엔(10만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이날 회의에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 일본낙농정치연맹, 전국육우사업협동조합, 일본양돈협회, 일본양계협회 대표자들이 참석해 대책 마련을 당부

자료 : 일본경제신문(23.1.24), 일본자민당(www.jimin.jp) 홍보자료(23.1.17)

6) 한우정보 해외소식 제36호(22.9.26) 참조, 일본정부는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낙농 긴급대책으로 2022년도 예비비에서 504억엔(약 5천억원)의 축산농가 지원조치를 9월 20일부터 시행, 추가적인 가격인상분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 핵심  
7) 중의원(衆議院): 일본의 의회중 하나로, 일본에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음

**Consulting** BA플러스

##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

**2부**

등급 높을수록 가격 하락폭 적어 품질관리 신경  
거세비육우 육성구간 대두박 등으로 조단백 보충  
비싼 조사료 교체대신 단백질 함량·비타민 공급

이전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1\*\*등급의 경락가격은 하락장에서도 1등급 경락가격보다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투자(=높은 경락가격)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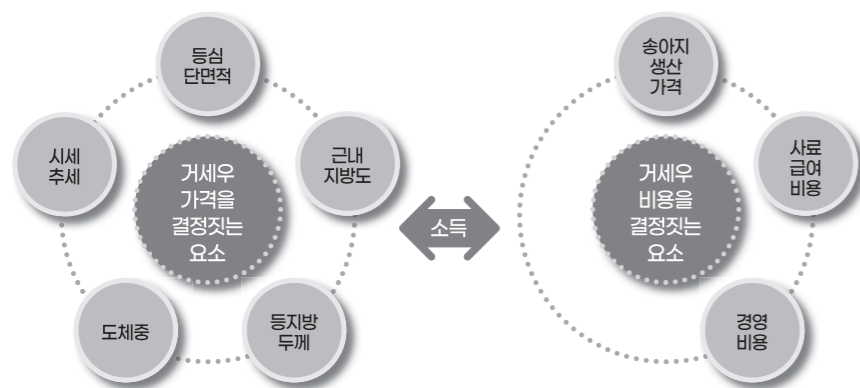
거세우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등심단면적, 근내지방도, 도체중, 등지방 두께임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거세우의 등급기준이 2019년 12월부터 그 이전과 다르게 적용되어 도체중에 대한 등급하향 적용이 완화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체중을 그 이전보다 더 키워야 합니다. 도체중이 증가할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나친 열량으로 인한 등지방 두께의 증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지방 두께를 증가시키지 않고 도

체중을 키워야 하는 방법에는 송아지 급여방식부터 부연 설명이 필요하기에, 이는 다음 회차에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근본적으로 영양학에 있어서 단백질과 지방의 상관관계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노의 질주’ 영화시리즈의 주연배우인 드웨인 존슨의 일일 식사량은 9,000kcal 수준으로 일반 성인기준 하루 2,500 ~ 3,000kcal보다 약 3배 이상입니다. 그러나 드웨인 존슨이 뚱뚱하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근육량(단백질)에 있습니다. 비육후기 TDN으로 인한 열량축적이 되더라도 꾸준한 단백질 섭취가 된다면 등지방 두께는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즉, 사료급여프로그램에 있어서 단백질

한우거세 소득을 결정짓는 요소



함량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가격이 상승되기 전 사료급여프로그램 급여방식을 비용절감 관점에서만 몰두하다보면 단백질 함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2년 사료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많은 농가에서 육성구간 알파파와 티모시 급여패턴이 톨페스큐, 벧짚 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때문에 조사료에서의 조단백 함량은 16~17%수준에서 10%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일부 발빠른 농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클라인을 사용하였습니다. 품질수준을 유지한 농가는 대체적으로 등급의 하향조정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는 등급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무조건적인 비용 절감만을 앞세우면 거세비육우 육성구간에 배통 등의 체성장이 덜 발달합니다. 비용절감을 위한 조사료의 교체는 품질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단백질 급여량이 줄어들도록 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조성을 위해서는 양질건초에서 공급되는 비타민을 물론 고려해야 합니다.

육성구간의 많은 연구논문 자료에 따르면, 조단백 함량이 16%수준에서 체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배합사료의 육성구간 조단백 함량은 16%인데, 조사료의 조단백 함량은 어느 수준일까요? 16~17%수준에서 10%수준으로 떨어지면 부족한 만큼 단백질 함성이 낮아질 것이고 이는 도체중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조단백을 루핀, 대두박, 발효대두박 등으로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각각의 조단백 함량과 가격의 가성비를 따져서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가격대비 효율은 1kg당 가격으로 환산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가격을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대두박이 가성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여량은 사용하고 계신 배합사료의 CP와 TDN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비싼 조사료를 교체하는 대신에 단백질 함량과 비타민을 공급해 준다면 육량등급은 유지되면서 등지방으로 육질등급이 낮아질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번식우에 대한 비용절감과 번식우의 경제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에 계속)

1\*\*등급의 경락가격은 하락장에서도 1등급 경락가격보다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투자(=높은 경락가격)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 수의칼럼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수의학 박사

## 봄철 환절기 대비한 환기 한우질병 예방관리요령



일반적으로 환기는 밖에서 들어온 공기는 내부의 공기와 섞인 다음 소에 도달되어야 하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이하면 특히 면역능력과 체력이 낮은 어린 소들은 환경(온도, 풍속, 습도 등)의 변화에 의한 대사불균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질병발생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리를 통해 생산성저하를 막아야 한다.

환절기(換節期)라 함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로 일명 변절기(變節期)로도 불리는 데, 특히 이 시기에 아침저녁으로 바깥의 찬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이 되어야 하며, 야간에는 축사에 보온을, 낮동안은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양질의 사료공급과 비타민, 광물질 등의 첨가제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사료효율의 제고와 아울러 호흡기질병, 설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축사 소독, 환기 등의 주변환경관리와 함께 호흡기질병, 설사병 등의 백신을 적기에 접종하여 소들이 면역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소독과 외래유입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 모든 질병이 사전에 발생이 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축사입구에는 생석회 도포나 소독조 설치와 매일 교체 등의 철저한 소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의 환기의 중요성과 질병의 발생요인과 예방관리요령들을 숙지해야 한다.

### 1. 환기의 정의와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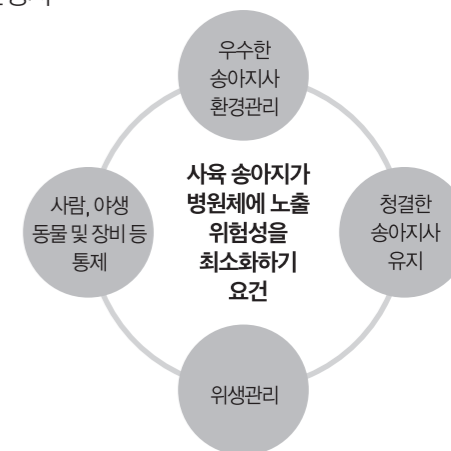
환기는 보통 실내의 공기를 창 밖의 공기와 교환하는 뜻으로 사용되며, 창문이나 환기통 등을 이용하는 자연환기와 송풍기나 환풍기를 사용하는 기계환기(강제환기)로 나눈다.

일반적인 환기의 목적은 더러워진 공기의 갱신(更新)과 열이나 습기 등의 제거이다. 더러워진 공기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의 사용목적상 부적당한 냄새·연기·먼지·세균·습기·가스 등이 일정하고 이상 포함된 공기를 말한다. 공기 중 탄산가스 농도가 4~5% 이상일 때는 위험하며,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탄산가스의 농도가 한도이하라도 안전하지 않다

### 2. 송아지 설사병 발생 시 주의 사항과 처치요령

대개 환절기만 되면 특히 호흡기질병 등이 다발하는 이유는,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소의 몸의 저항능력과 면역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호흡기질병에 걸리기 쉽다.

송아지 사육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생산성저하를 초래하는 질병은 생후 1개월령이내에 발생하는 설사병과 호흡기 질병이며, 이들은 폐사율이 목장 상황에 따라 3~30%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발생요인은 환절기 사양환경급변, 면역력 정도, 영양 및 사양관리 등이다. 호흡기는 대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심한 환절기에는 각종 바이러스, 세균이나 진균 등에 의한 호흡기 질병이 증가하게 되며, 발생요인은 심한 일교차, 만성질환으로 허약한 상태로 저항력이 떨어진 경우와 경미한 호흡기질병을 가진 경우이다.



### 3. 주요 질병의 종류

송아지는 성우에 비해 면역기능저하나 미숙으로 설사병이나 호흡기질병에 걸리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 송아지 설사병

- 송아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항문의 주위나 꼬리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 변의 색상, 색으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 소화불량성 설사 : 과식, 소화되지 않는 사료(어미 사료의 훔쳐먹기, 볶짚, 사일레지 등)
  - 모유성 설사 : 모축이 나쁜 상태의 모유, 유방염, 모유부족에 따른 불결한 땃짚을 섭취시
  - 감염성 설사 : 바이러스, 세균(대장균 등), 기생충

[표 1] 한우 설사변의 특징과 의심질병

색깔과 외견상	의심 질병	색깔과 외견상	의심 질병
백색~황백색	대장균성 설사병	선혈~응혈상	결장 하부, 결장 출혈
담색, 작은 포말성	장의 이상발효	적색	맹장·결장 출혈
담색, 불쾌한 냄새	장염	흑갈색	지속성 변비
담색, 수양성	세균성 설사	타르양 흑색	소장의 출혈
점조성 변	식체, 제4위 전위		

- 대책
- 수분의 공급 : 상실한 이상의 수액 공급, 조속히 수의사와 상담
  - 경구 보액제재 : 신속하게 먹을 수 있는 양만큼 급여
  - 감염성 설사병 : 축사, 우사내의 소독실시와 백신접종
  - 자가 치료는 피하는 것이 좋음 : 물의 제한, 설탕물이나 요쿠르트 급여는 증상을 악화시킴

[표 2] 계절에 따른 송아지 질병 발생률 비교 (Catalina Medrano Galarza 등, 2017. Canada)

계절	두수	설사병 발생률(%)	호흡기질병 발생률(%)
봄	366	23	15
여름	343	27	16
가을	364	25	15
겨울	415	16	19
소계	1,488	23(평균)	17(평균)

나. 송아지 호흡기질병

- 송아지에 발생하기 쉬운 질병으로 송아지 설사병과 같이 발생이 많다.
- 바이러스와 세균이 혼합감염하면 증상이 보다 악화됨 ⇒ 회복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성장이 지연되어 폐사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 대책
- 가장 중요한 것은 우사의 청소·소독과 백신 접종을 동시에 실시한다.
  - 항생제의 투여 : 세균의 2차감염을 억제한다.

[표 3] 주요 바이러스성 호흡기병의 종류와 증상

질병명	증상
소합포체성폐렴(RS)	40~42℃의 발열이 장기간 지속, 기침, 침흘림, 유루(눈물흘림), 콧물누출, 증증예에서는 피하기중이나 폐기중
소전염성비기관염	40℃이상의 발열, 호흡곤란·축박, 침흘림, 유루(눈물흘림), 수양성 콧물 등
소바이러스성 설사·점막병 (BVD-MD)	호흡곤란, 호흡축박, 침흘림, 유루(눈물흘림), 콧물흘림 등 혈액을 포함한 설사변이 보이는 경우도 있음
소 아데노바이러스병	발열, 유루(눈물흘림), 콧물흘림외 혈액이 혼재된 설사변이 보이는 경우도 있음
소파라인플루엔자	발열, 원기·식욕 소실, 콧물흘림, 기침 등

4. 환절기의 한우 질병예방관리요점

- 급작스런 사양환경의 변화 및 스트레스에 의한 항병력저하 대책수립
- 초기에 충분한 초유급여
  - 갓 태어난 송아지나 신생송아지에 대해 보온 등의 적절한 위생관리
  - 해빙기에 발생우려가 있는 축사붕괴 등에 대비한 축사관리 철저
  - 심한 일교차에 대비한 방풍 및 우군의 보온관리
- 발생우려가 있는 주요 질병에 대한 각종 예방접종실시와 관리
- 소 바이러스 설사병, 소 합포체성 폐렴, 파라인플루엔자, 전염성비기관염 및 송아지설사병 등에 대한 적기에 예방접종실시
- 외부로부터 소를 구입하여 입식당일에는 따뜻한 물, 양질의 조사료를 주고, 농후사료는 다음날 부터 서서히 양을 증가시켜 급여하여야 하며, 스트레스를 초기에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이 되도록 한다.
- 기생충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봄·가을에 정기적인 구충과 새로이 입식하는 소, 방목하기 전에 구충을 실시한다.
- 피부손질과 함께 축사바닥이나 운동장의 날카로운 이물질을 제거하여 발굽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 전문가 칼럼



김병숙  
한국종축개량협회  
경기인천지역본부장

## 우량암소가 답이다 적극 활용하자

우량암소 선정기준이 2023년부터 다시 강화되었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2013년부터 우량암소 기준을 설정하여 한우의 우수유전자원 보호 및 확대를 위하여 매달 우량암소를 선정하여 그 자료를 해당 농가 및 지자체와 조합에 제공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2013년 첫 우량암소 선정 시에는 생존하는 혈통등록우 이상이면서 후대축 도축성적이 육질등급(1<sup>++</sup>)과 등심단면적(110cm<sup>2</sup>이상)이 우수한 개체 2,614두를 우량암소로 선정하였다. 우량암소에 대한 선정기준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화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량암소 두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우농가의 우량암소에 대한 관심과 개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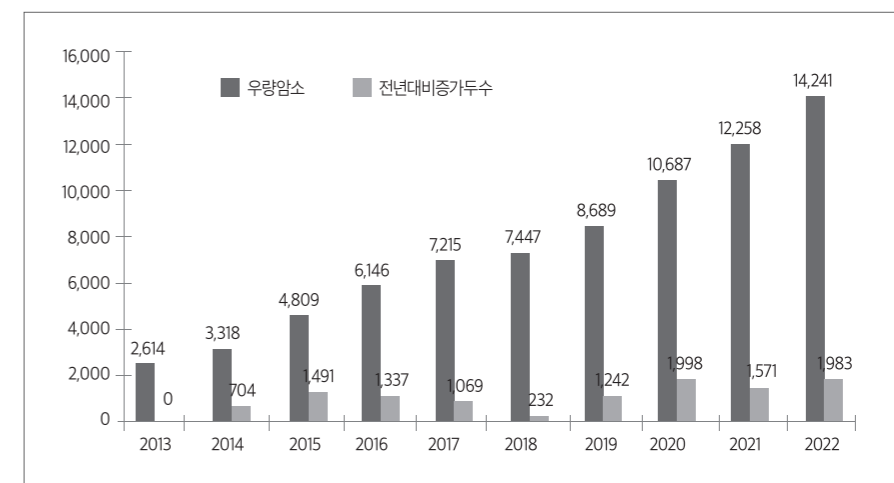


대한 열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1>의 우량암소 선정기준 변경내역에서 최종적으로 2023년부터 강화되는 내용은 첫 번째가 혈통 '2계대이상'을 추가하였다. 그동안, 우량암소 중 혈통 2계대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수정란이식용 공란우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코자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전능력을 추가하였다. 유전능력평가 결과 주요 4개 형질(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에서 2개 형질에서 B등급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을 통해 선정되는 우량암소는 후대축 도체성적은 물론이고, 외모 및 혈통과 유전능력까지 겸비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암소라고 할 수 있다.

[표 1] 우량암소 선정기준 변경내역

구분	기준 변경내역	
	후대축 도체성적	기타사항
2013.8	○ 육질1 <sup>++</sup> , 등심단면적 110cm <sup>2</sup>	○ 생존하는 혈통등록우 이상
2017.3	○ 도체중450kg, 육량B등급이상 추가	○ "
2018.3	○ "	○ 심사점수 78점이상, 친자확인 추가
2021.1	○ 도체중(450kg→480kg) 강화	○ 심사점수 80점으로 상향
2023.1	○ "	○ 2계대이상, 유전능력평가 결과 4개 중 2개 이상 B등급 이상 일 것 추가

연도별 우량암소 두수현황



## 우량암소 확보 수정란이식사업 등 번식 활용

## 지자체-조합 농가 역할분담 경쟁력 확보

일반 농가에서는 도체등급 하락을 우려하여 2~3산후에 비육 출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암소개량의 중요성을 알고 우량암소에 대한 부가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량암소가 농가 소득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 그 부가가치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량암소로 선정된 개체들의 산차는 평균 5.8산으로 나타났으며, <표2>는 전체 거세우와 우량암소 후대축 거세우의 도축성적·경락가격 등을 농가소득 측면에서 비교 및 분석해 보았다.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근 5년간의 우량암소 후대축은 일반 거세우보다 두당 평균 1,689천원의 추가소득을 창출하고 있었으며, 2018년에는 1,239천원이었으나, 2022년은 2,133천원으로 경락가격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우량암소를 10두 보유한 농가와 일반농가의 연간 부가가치를 5년간 후대축 도축성적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16,890천원(10두×1,689천원)의 소득차이가 있는 것이다.

[표 2] 연도별 거세우 및 우량암소 후대축 거세우 등급판정결과

연도	두수		도체중 (kg)		등심단면적 (cm <sup>2</sup> )		근내지방도 (No)		경락가격 (원/kg)		두당경락 가격(천원)		두당 경락가격 차이 (천원)
	전체	우량	전체	우량	전체	우량	전체	우량	전체	우량	전체	우량	
2018	390,956	8,459	444	475	93.5	104.7	5.8	7.1	18,668	20,077	8,289	9,528	1,239
2019	413,418	9,362	446	480	95.0	107.3	5.9	7.3	19,033	20,712	8,489	9,952	1,463
2020	405,785	8,999	447	483	95.0	107.5	5.9	7.3	21,140	22,986	9,450	11,112	1,662
2021	427,011	11,163	454	494	95.4	107.9	6.0	7.3	22,662	24,775	10,289	12,238	1,949
2022	451,229	11,630	461	501	96.7	108.7	6.1	7.4	20,842	23,436	9,608	11,741	2,133

자료 :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자료(2018~2022)

[표 3] 우량암소 보유두수 상위 10농가

연번	소유자	혈통	고등	소계	주 소
1	김원기	33	16	49	경기 김포시
2	경기도축산진흥센터	17	31	48	경기 화성시
3	합천축협	15	30	45	경남 합천군
4	이해룡	10	27	37	경남 함안군
5	정왕용	29	6	35	전북 정읍시
6	최춘호	28	2	30	경기 안성시
7	원정호	16	12	28	경기 안성시
8	서승민	6	22	28	전남 영암군
9	심명환	7	21	28	전남 곡성군
10	정맹열	11	14	25	경북 김천시

자료 : 한국종축개량협회 2022년 사업보고서

<표3>은 우량암소를 많이 보유한 농가 리스트이다. 이와 같이 우량암소 보유두수 상위 10농가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일반농가와 비교하면 5,300만원(25두×2,133천원)~1억400만원(49두×2,133천원)까지 추가소득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능력이 우수한 암소우군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농가 소득향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 및 도축자료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따라서, 우량암소 및 초우량 암소를 확보하고 수정란이식사업 등 번식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자체 및 조합과 농가에서 서로 역할분담을 통하여 농가 소득향상과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매진해야 하겠다.



# 소규모농가 (99m<sup>2</sup>이하)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신청 요령

(가설건축물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방법)



## ■ 가축사육시설의 종류

-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일반건축물
- 가설건축물: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비가림 시설은 포함, 운동장은 제외)
  -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 10호) 연면적 100m<sup>2</sup>이상의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과 지붕이 합성수지로 된 것과 지붕이 합성강판과 합성수지로 된 경우 합성강판 면적이 1/2 이하인 것 포함)
- 기타: 상기 외의 시설 등으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슴·면양 또는 울타리(등록 기준) 시설

## ■ '20.1.1일부터 신규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는 건축물대장,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허가필증이 있어야 축산업 등록허가 가능('19.12.31일까지 등록허가 농가 중 변경 신고허가 농가는 해당하지 않음)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닌(창고, 주택 등) 경우에도 축산법상 가축사육시설 기준에 충족되고 가축이 사육되는 경우 등록허가 가능
- 건축물의 용도가 "축사"라도 실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경우(조사료, 자재 창고 등) 허가(등록) 면적에서 제외(가축을 사육하는 면적만 등록허가 면적으로 기재)
  - ※ 100m<sup>2</sup> 미만의 가설건축물(간이축사용)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이 없어도 축산업 등록허가 가능
  - ※ 100m<sup>2</sup>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소)의 경우 가분법에 따라 배출시설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배출시설 신고허가필증 없어도 축산업 등록허가 가능

\* 신고대상(m<sup>2</sup> 이상): 소 100, 돼지 50, 면양·염소·사슴 닭·오리·메추리 200

※ 축산업 등록허가 대상 시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축산업 등록허가 가능(축산업상 등록허가 제한 규정 없음)

-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육제한 구역내에서 사육이 허용된 두수만 사육가능(환경부서 담당)

- 축사 및 시설·장비 배치 현황도(농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배치도' 가능)

## 1 축산업 등록 허가 신청 기준(법령별 기준)

### ■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대상 및 신청 서류 등

- (서류 및 시설) ① 사육시설 설치, ②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 필증, ③ 건축 신고허가필증, ④ 소독시설 설치, ⑤ 종사자 교육이수증, ⑥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등

\* ②, ③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구분	축산업 (사육시설)			가축분뇨법 (배출시설)			건축법 (건축물)				가전법 (소독시설)		
	등록 제외	등록	허가	신고 제외	신고	허가	가설건축물		일반건축물		의무		
							신고 제외	신고	신고	허가			
등록허가 서류·시설	설치 제외	사육 시설 설치	사육 시설 설치	제출 제외	설치 신고증	설치 신고증	제출 제외	축조 신고 필증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일부 설치	소독 시설 설치	
한우·젖소	-	50㎡ 이하	50㎡ 초과	100㎡ 미만	100㎡ 이상	90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50㎡ 이하	50㎡ 초과	
돼지	-	50㎡ 이하	50㎡ 초과	50㎡ 미만	50㎡ 이상	1,000㎡ 이상							
면양·염소· 사슴	등록 * 통풍구조, 환기시설, 울타리 설치			200㎡ 미만	200㎡ 이상								
닭·오리	10㎡ 미만	50㎡ 이하	50㎡ 초과	200㎡ 미만	200㎡ 이상	3,000㎡ 이상							
메추리	10㎡ 미만	10㎡ 이상	-	200㎡ 미만	200㎡ 이상								
거위·철면조· 타조·꿩·기러기	10㎡ 미만	10㎡ 이상	-	- (신고허가 제외)									
말	- (등록·허가제외)			100㎡ 미만	100㎡ 이상	900㎡ 이상							
개	- (등록·허가제외)			60㎡ 미만	60㎡ 이상								
기타 가축*	- (등록·허가제외)			- (신고허가 제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 동용, 가축비 가림용 비닐 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지 붕 또는 벽이 합성수지, 지 붕면적의 1/2 이하 합성강 판 재질)		* (대인)간이분 무용 소독장 비, (차량)고 압분무기, 신 발소독조, 울 타리, 방조망		* (대인)간이분 무용 소독장 비, (차량)고압 분무기, 신발 소독조, 출입 기록부, 방문 차량소독 실시 기록부	

\* (관상조류)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영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 (곤충)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저, 애반딧불이, 장수풍뎡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 2 간이 측사용 가설건축물 개보수(요약)

### ① 축사시설의 건축물대장 및 배출시설 신고필증 유무 확인

○ (배출시설 신고) 건축물대장은 없으나 배출시설신고필증은 있는 경우 배출시설 신고된 면적 또는 사육시설 면적만 산출하여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신청

## ② 건축물대장(일반, 가설)이 있는 경우

○ (배출시설 신고) 건축물대장과 배출시설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각각 면적 중 사육시설 면적만 산출하여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신청

○ (배출시설 미신고) 주택, 창고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있으나 배출시설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사유시설(퇴비사, 사료창고 제외) 부분만 면적 계산

- 사육시설 면적이 99.9m<sup>2</sup>이하 되도록 기둥 등으로 구분하여 개보수

\* 소사육시설면적이 100㎡이상 시 배출시설 신고대상

○ 사육시설의 기둥중심선, 외벽중심선을 연결한 선으로 길이 측정 및 면적 산출

### ③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 주택, 창고 등과 붙어 있는 시설은  
주택, 창고 등과 분리(50cm)하고  
가설건축물 요건에 맞게 지붕, 외  
벽 등 개보수, 사육시설 면적은  
99.9m<sup>2</sup> 이하



\*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과 지붕이 합성수지로 된 것과 지붕이 합성강판과 합성수지로 된 경우 합성강판 면적이 1/2 이하인 것 포함)

### 3. **축사 및 시설장비 배치 현황도(공통제출서류)**

※ 배치 현황도는 농가 등이 직접 작성 가능(건축사무소 등에서 작성한 서류가 아니어도 됨)

## ■ 작성방법

① 인터넷 지도서비스에서 지도 다운로드 후  
한글에 편집



② 한글파일에 축사, 소독방역시설 등 표기

## 축사 및 시설장비 배치 현황도

자필제출가능

○ 허가(등록) 신청인 : 홍길동

홍길동(서명 또는 날인)

○ 사업장(농장) 주소: ○○○시 ○○○면 ○○○리 ○○○

○ 축사 및 시설장비 배치도



### · 고정형 소독시설

○ 사육시설 현황

사료조	사료조	사료조	1.2m
우방	우방	우방	3.5m
4.0m	4.0m	4.0m	

자필제출가능

- 가설건축물: 56.4m<sup>2</sup>(우방 42m<sup>2</sup>, 사료조 14.4m<sup>2</sup>)

#### 4 매몰지, 시설장비 등 현황 서류(공통제출서류)

##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

○허가(등록)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장(농장) 주소:

○축사면적 : m<sup>2</sup>

○가축종류 :

매몰지	○ 주 소 : 내 (면적 m²) ○ 소유자 :
시설현황	○ 축사 동 m²
	○ 관리사 m²
	○ 퇴비장 m²
	○ 소독시설
	○ 방역시설
	○ 기타
악취저감 장비·시설 현황	○ 시설 또는 장비명 : 예)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악취탈취시설, 축분고속발효기, 음식처리기, 용수처리기, 미생물배양시설, ...
장비현황	○ 트랙터 대
	○ 스키드로우더 대
	○ 경운기 대
	○ 화물차 대
가축사육규모 (번식, 비육 등)	○ 계획(신규) - 번식 마리, 비육 마리 ○ 사육두수(지위승계) - 번식 마리, 비육 마리

5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공통제출서류)

1.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내역

구분	퇴비사(M³)		액비시설(M³)		정화(M³)	기타(M³)
	발효조	저장조	발효조	저장조	공법	임시보관시설 (슬퍼리피트 등)
1동	00.00 (W × L × H)	00.00 (W × L × H)	00.00 (W × L × H)	00.00 (W × L × H)		
2동						
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증 참조(배출시설 신고미만은 제외)

2. 악취저감시설 설치 내역 및 저감 방법

악취저감 시설명	저감 방법
안개분무, 액액세정, 액비순환, 마설치	마설치 예시) 축사 바닥에 톱밥(왕겨) 00cm를 사용하고, 사용하여 함수율 관리하고, 월 1회 이상 미생물제제 살포 및 교반 관리하여 악취저감

3.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처리 계통도(예시)



7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한우 · 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양

[ ]사슴,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 [ ]타조, [ ]꿩, [ ]기타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기타는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신청인	①성명 홍길동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000000-1000000	
	③주소 집 주소 기재	④전화번호 (집)000-0000	

⑤ 사업장 명칭 농장명 기재

⑥ 사업장 소재지 00시군 00면 000리 00번지(도로명 00로 000)

[ 전화번호:010-0000-0000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고정건축물			한우 방사식(계류식)
	가설건축물	1	49	
	기타(사슴·염소·양·울타리)			
계		1	49	
⑨ 사육 마릿수		5두 (번식우 3, 비육·육성 2, 송아지 1)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m <sup>2</sup> , 수: 수		

「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3년 00 월 00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00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 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 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 년 00 월 00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 · 등록자 관리 · 정기점검 · 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 · 등록자 관리 · 정기점검 · 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  
임 · 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  
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 ·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 · 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 · 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 · 등록 및 교  
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  
산업 허가 · 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 · 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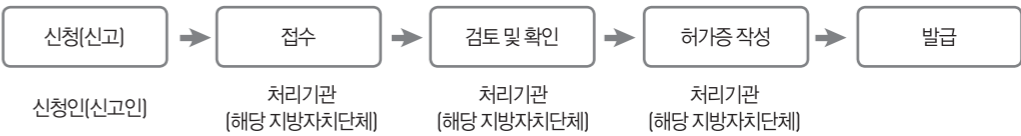
2023년 00 월 00 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활용 동의자)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

유의 사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사슴 · 면양 또는 염소 울타리의 경우는 울타리의 반경을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  
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  
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3호가목2) · 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사  
육시설 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 ·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리 절차



8 가축사육업 한우·육우 허가신청서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한우·육우,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5일
신청인	①성명 홍길동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000000-1000000		
	③주소 집주소 기재	④전화번호 [집]000-0000		

⑤ 사업장 명칭 농장명 기재

⑥ 사업장 소재지 00시군 00면 000리 00번지(도로명 00로 000)

[전화번호 : 010-0000-0000]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시설의 형태	⑩가축의 종류	⑪사육면적(㎡)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예1	가설건축물 (51~99.99)	방사	번식우	90	9(두당 10㎡)
	예2	가설건축물	계류	번식우	90	18(두당 5㎡)
	예3	가설건축물	방사	비육우	70	10(두당 7㎡)
	예4	가설건축물	계류	비육우	80	16(두당 5㎡)
	계				000	0000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00 월 00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0 월 00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홍길동(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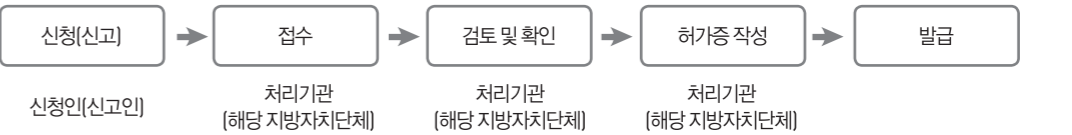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00 월 00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홍길동(서명 또는 인)
------------------------	-----	--------------

유의 사항

-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적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 ⑨~⑬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시설의 형태, 시설형태별 사육면적, 가축의 종류,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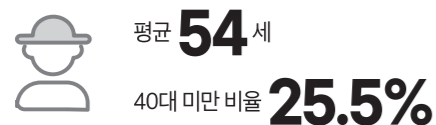
# 2022년 한우사육농가 경영실태 및 농가인식조사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 조사농가 특성

### 농장주 연령



### 영농경력



### 대부분 가족경영 일관사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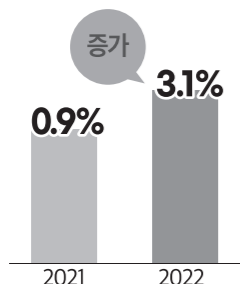
가족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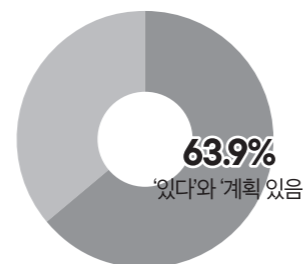
일관사육



### 위탁사육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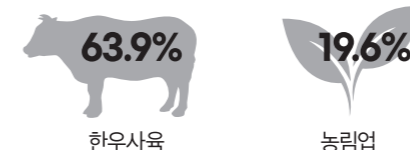


### 영농후계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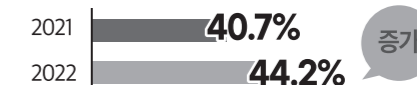


## 농가 경영특성

### 농가의 주 수입원



### 2억원 이상 부채 농가비율



부채발생 주 요인은 사료구입과 시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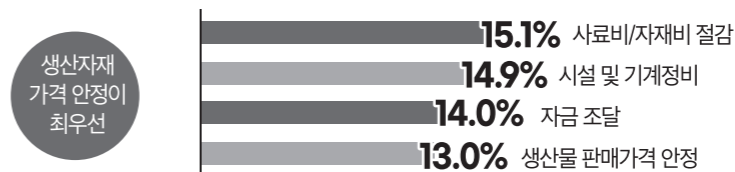
### 사육규모 확대 경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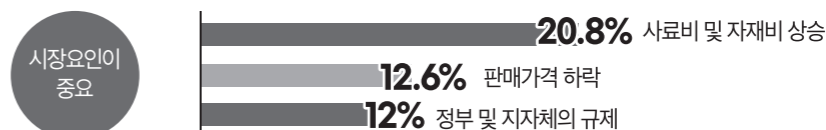
### 3년 후 사육지속 의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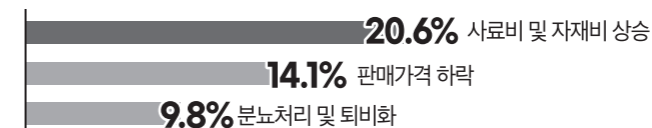
### 사육규모 확대 필요 과제



### 한우 사육 규모 축소 및 현상유지 이유



### 경영애로사항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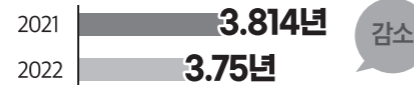
## 사육특성

### 번식성적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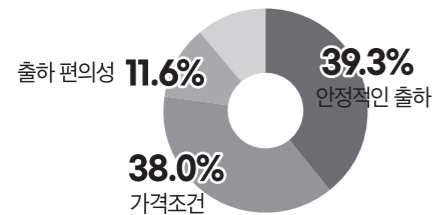
번식간격 13개월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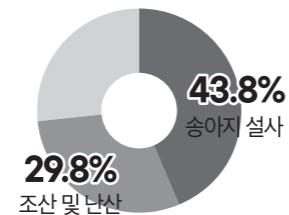
평균산차



### 비육우 출하처 선택 우선순위



### 송아지 폐사 원인 1위는 송아지 설사



## 한우농가 인식

### 출하결정 스타일, 시장 상황 고려

18.5%

### 최근 불안정한 소 값에 따른 출하시기 조정 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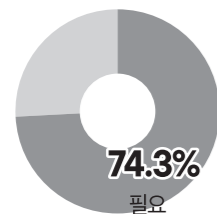
40.2%

### 출하시기 앞당긴다는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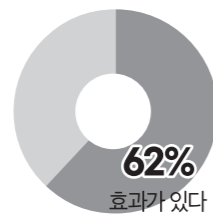
63.0%

### 수급안정을 위한 경산우 및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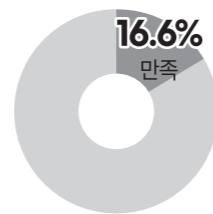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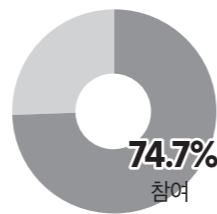
사업효과



보상금수준 만족도



사업 참여의사



## 한우협회 활동에 대해

### 협회활동 관심도

관심 65.7%

### 정보 입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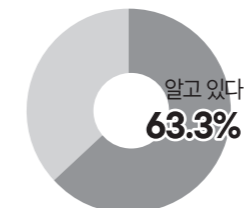


### 협회활동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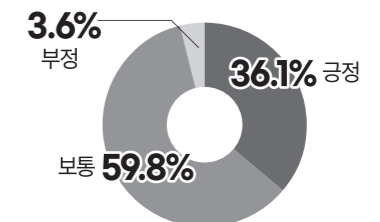
긍정 46.9% 중립 45.1% 부정 8%

### OEM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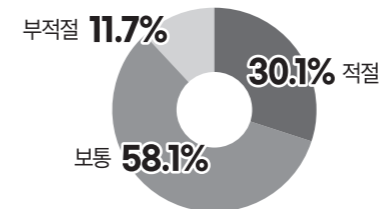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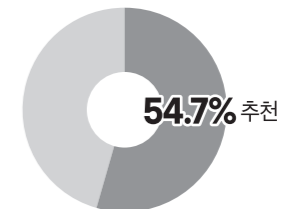
긍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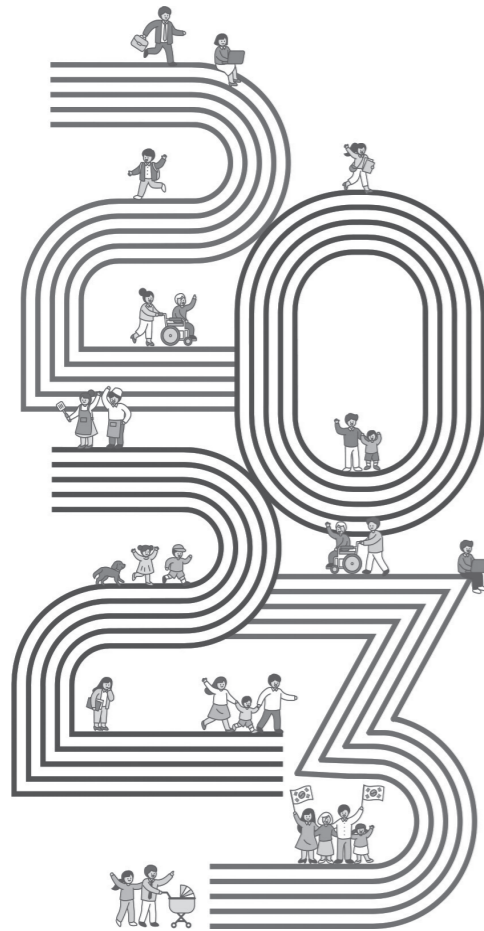
판매가격 적절성



향후 사용 및 추천 의향



# 2023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주요제도



올해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농림축산식품분야는 21개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4→54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발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주요항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 044-201-1721) /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5)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되어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한 중소농가는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및 사업화 추진하게 됐다.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운영비, 교통비, 보험료 등 지원하며 1월부터 시행된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4)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유도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2)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 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며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32)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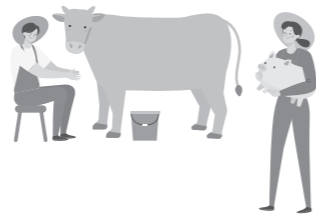
1월부터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1%에서 0.5%로 인하하며,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까지 확대한다.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32)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며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4)

자연재난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대상 자금이 전면 확대된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인 기존 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할, 과원규모화 등 4개에서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용자되는 모든 농업정책자금, 54개로 확대된다.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작년 12월 11부터 시행됐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2)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며 공익직불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지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농지요건 완화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4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 044-201-2915)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며, 논 이용률 제고 등 이모작 중심의 작부체계 전환을 위해 전략작물간 이모작(밀·조사료 이외 동계작물은 제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급단가는 전략작물(하계 논콩·가루쌀+동계 밀·조사료)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헥타르(ha)당 250만원을 지급하며,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 시 ha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 재배 시 ha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이모작은 하지 않고, 동계에만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기존 논활용 지급대상작물을 재배할 경우 현행대로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시행은 1월부터이며, 직불금 신청은 기존 논활용직불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2)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 혜택의 균형 있는 확산 유도를 위해 상반기 중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농가의 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된다. 대상품목 3개(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가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품목이 70개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가지 발작물을 연작하는 경우 후작 품목을 파종·정식할 때 전작 품목의 식물체 일부가 남아있더라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농가 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했다.



###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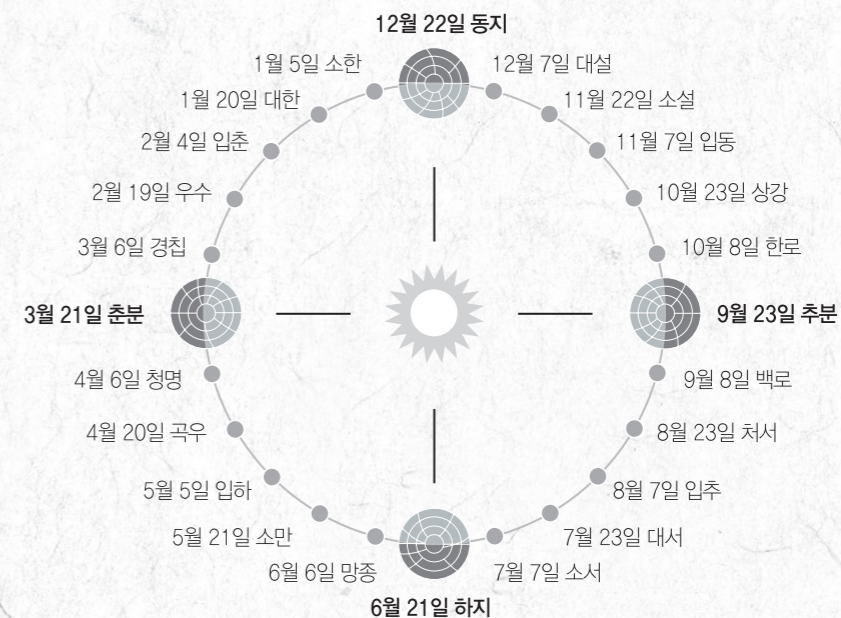
1월 5일부로 개정된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가 의무화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뼈·관절에 대한 수술 및 수혈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hatsnew.moef.go.kr>

# 달력에 숨은 과학 24절기

고대인에게 날짜를 계산하는 손쉬운 방법은 일정한 주기를 갖고 하루하루 모양이 변해 가는 달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달 모양에 따라 날짜를 세는 방법이 태음력(太陰曆)으로 발전했다. 음력은 날짜의 흐름을 쉽게 알게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계절은 태양의 운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출처 : 라이프사이언스, 기상청, CIVIC뉴스



## 태양의 움직임 24등분...계절변화 표시

태양의 움직임을 24등분하여 계절 변화를 표시한 것이 24절기다. 그래서 24절기는 태양력(太陽曆)의 날짜와 대체로 맞는다. 음력은 달의 삭망(朔望) 주기에 따르고 양력은 해의 공전(公轉) 주기에 따르므로 한 해의 길이가 각각 354일과 365일로 차이가 난다. 음력에서 모자라는 11일을 윤일(閏日)로 삽입해 양력의 길이에 맞추고, 계절 변화를 나타내는 24절기를 보완해 발전시킨 달력이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음력으로 불리는 이 태음태양력은 이슬람권에서 사용하는 순(純)태음력과 다르다. 이슬람력에서는 아랍어로 '힐랄(Hilal)'이라 부르는 초승달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 지역마다 달뜨는 시간이 달라 매달 시작일도 나라마다 다르다. 사막이 대부분인 중동의 이슬람권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농경사회에 서만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력에 양력 요소를 보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고려 충렬왕때 도입...농사 짓는데 사용

원래 24절기는 중국 주(周)나라 시기 화북지방에서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해를 24기로 나눈 것으로, 태양의 황경이 0도인 날을 춘분으로 하여 15도씩 이동할 때마다 구분해 24절기를 나눈 것이다. 입춘에서 곡우 사이를 봄, 입하에서 대서 사이를 여름, 입추에서 상강 사이를 가을, 입동에서 대한 사이를 겨울로 정해 4계절의 기본으로 삼아 생활했다.

우리나라는 고려 25대 충렬왕 시기에 도입돼 농사를 짓는데 널리 사용됐으며,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일조량, 강수량, 기온 등은 모두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생활하던 그 당시에도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24절기를 사용한 이유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24절기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의 산물이다. 경험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청명은 봄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다. 망종은 한자로 ‘보리 씨앗(芒種)’이란 뜻이니, 이때 보리를 심는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처서 무렵의 날씨는 한해 농사의 풍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

특히 ‘처서에 비가 내리면 독 안의 든 곡식이 줄어든다’는 말처럼 처서 무렵의 날씨가 얼마나 농부에게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조상들의 체득적인 삶의 지혜가 반영됐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서 처서의 서늘함 때문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도 있다.

### 양력 9월 9일 무렵 백로...가을의 시작

처서와 추분 사이에 있는 백로는 양력 9월 9일 무렵으로 대개 음력 8월에 들며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다. 백로(白露)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때쯤이면 밤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한다. 백로 무렵에는 장마가 걷힌 후여서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하지만 간혹 남쪽에서 불어오는 태풍과 해일로 곡식의 피해를 겪기도 한다.

백로 다음에 오는 중추는 서리가 내리는 시기이다. 전남에서는 백로 전에 서리가 내리면 시절이 좋지 않다고 한다. 뱃논의 나락은 늦어도 백로가 되기 전에 여물어야 한다. 벼는 늦어도 백로 전에 패어야 하는데 서리가 내리면



365일 자연의 흐름 담은 절기

입춘~곡우 봄, 입하~대서 여름  
입추~상강 가을, 입동~대한 겨울

찬바람이 불어 벼의 수확량이 줄어든다. 백로가 지나서 여문 나락은 결실하기 어렵다.

제주도 속담에 ‘백로전미발(白露前未發)’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패지 못한 벼는 더 이상 크지 못한다고 전한다. 또한 백로 전에 서리가 오면 농작물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농가에서는 백로 전후에 부는 바람을 유심히 관찰하여 풍흉을 점친다. 이때 바람이 불면 벼농사에 해가 많다고 여겨며, 비록 나락이 여물지라도 색깔이 검게 된다고 한다.

백로는 대개 음력 8월 초순에 들지만 간혹 7월 말에 들기도 한다. 7월에 든 백로는 계절이 빨라 참외나 오이가 잘 된다고 한다. 한편 8월 백로에 비가 오면 대풍이라고 생각한다.

경남 섬지방에서는 ‘8월 백로에 비가 오면 십리 천석을 늘린다’는 말이 전하면서 비가 오는 것을 풍년의 징조로 생각한다. 또 백로 무렵이면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를 시작하고, 고된 여름농사를 다 짓고 추수할 때까지 잠시 일손을 쉬는 때이므로 부녀자들은 근친을 가기도 한다.

### 지구온난화영향으로 체감날씨와 달라

계절의 변화를 알기 위해 도입된 24절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체감하는 날씨와 차이가 난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4절기가 잘 맞지 않게 됐다. 기후학적으로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낮아졌을 때를 가을로 보는데 기후학적 가을이 1970년대에 비해 최근에는 보름 이상 늦춰지고 있다. 그래서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가 연중 가장 더운 날이 되어 버렸다. 원래 입추와 처서 사이는 기온이 내려가는 것이 정상인데 요즘은 입추 후 보름이 지난 처서에도 기온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 한우산업기본법 조속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동의서 서명운동 안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안인 한우산업기본법(한우산업전환법)이 지난해 여야 양당(국민의힘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 도지회 및 시군 지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서명 동참요청 활동을 진행중입니다.

동의서 양식과 법안 세부내용을 첨부파일로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법안 주요 건의 내용

- [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 [제6조] 송아지생산안정제, 비육경영안정제, 공익직불제도 등 경영안정프로그램 법제화
- [제7조]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 [제9조]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수급상황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
- [제11조]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도축 및 출하를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예, 미경산우, 경산우 기타 장려금)
- [제12조] 농가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대책 강구
- [제17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과 군급식등 단체급식에서 소비할 목표를 정한다
- [제22조] 기업자본과 기업이 생산에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기업자본과 기업에 대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다

## 한우산업 기본법 추진 경과(2022년)

- (2.8)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간담회
- (2.11)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한우산업 정책 협약 체결
- (2.11)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 업무협약
- (2.24)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과의 농축산업 정책간담회
- (7.1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 법' 발의(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12인)
- (11.25) 홍문표 국회의원 공동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 11.25 홍성 홍주문화회관, 약 500여 농가 참석
  -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발의 요구
- (12.21) '한우산업기본법' 발의(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11인)
- (수시) 농해수위 의원 면담 시 한우산업기본법 발의 요청
- (수시) 이원택의원실 실무자 면담을 통해 법안 구체화 논의

## 향후 계획

- 2023년 통과를 목표로 양당의 법안을 병합 심의해 법안 통과 추진
- 공감대형성 → 공청회 추진 → 국회의원 서명추진 → 법안통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

##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동의서

본 의원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지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23. . . .  
국회의원 성명 (인)

### 한우산업기본법

-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12.21)

공동발의자 10인(박덕흠, 성일중, 엄태영, 윤재갑, 윤주경, 윤한홍, 이용, 이채익, 최춘식, 한무경)

#### [한우산업기본법안(주요내용)]

한민족의 역사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자량이자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임.

한우산업은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 제정 동의서

본 의원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지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23. . . .  
국회의원 성명 (인)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7.12)

공동발의자 11인(권철승, 박완주,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유정주, 장경태, 주철현, 최인호, 한병도)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전환을 위한 지원 법안(주요내용)]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사료

- 한우 사료 품질과 가격의 표준점 제시
- 농가 주도 생산·원가공개·매달 가격 연동 시행

대한한우 사료의 원료구성

옥수수, 루핀후레이크, 대두박, 옥배아박, 채종박, 야자박, 팜박, 소맥피, 단백피, 비타민+미네랄혼합제, 황토, 미생물제, 당밀향+감미제, 번식개선편제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비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생후 월령		2~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출하월령 28개월 이상	
체중 (kg)		150		200	220	240	260	290	320	350	38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50	670	690	710	730	750	출하체중 750kg 이상	
일당증체량(kg)		0.8		0.8 - 1.0								1.0 - 1.2								0.6 - 0.8						0.84 kg	
조사료	건초	2.0		자유채식								2.0	2.0	1.0													
	볏짚										1.0	1.0	1.0	2.0	2.0	1.5	1.5	1.5	1.0	1.0	1.0	1.0	1.0	1.0	1.0		
배합사료 급여량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0	9.0	8.5	8.0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 프로그램

사육구분		번식우육성(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월령 (개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경산우										포유중	
체중 (kg)		130 ~ 150	150 ~ 170	170 ~ 190	190 ~ 210	210 ~ 230	230 ~ 250	250 ~ 265	270 ~ 285	290 ~ 305	310 ~ 325	330 ~ 345	350 ~ 365	370 ~ 385	390 ~ 405	410 ~ 425	430 ~ 445	450 ~ 465	470 ~ 485	490 ~ 505	510 ~ 515	520 ~ 535		
일당증체량 (kg)		0.6 ~ 0.8							0.4 ~ 0.6														0.6	
1일사료 급여량 (kg)	구분	번식용 중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배합	2 ~ 3 kg							3 ~ 4 kg														4 kg	
	섭취량	배합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증감 요인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 10%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대한한우 번식우				대한한우 육성기				대한한우 비육전기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생후2개월~6개월				적용범위 5개월~임신우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적용범위 생후15개월~22개월				적용범위 생후 23개월~28개월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천연물질을 의한 항병력 강화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몰이기				•발정과 수태를 최적으로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성정을위한충분한단백질공급				•성장을위한충분한단백질공급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적정에너지 공급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반추위기능을정상적으로유지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영양소균형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쾌적한환경조성필요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로 육질 향상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영양소균형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줌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어린송아지	20.0	2.5	20.0	번식우	14.0	2.0	15.0	육성기	15.0	2.5	20.0	비육전기	13.0	2.5	20.0	비육후기	12.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10.0	0.9	1.5	70.0	15.0	0.8	1.2	68.0	15.0	0.7	1.2	70.0	15.0	0.7	1.2	73.0	15.0	0.7	1.2	75.0

사료가격 투명화/합리적 가격/생산비 절감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23년 3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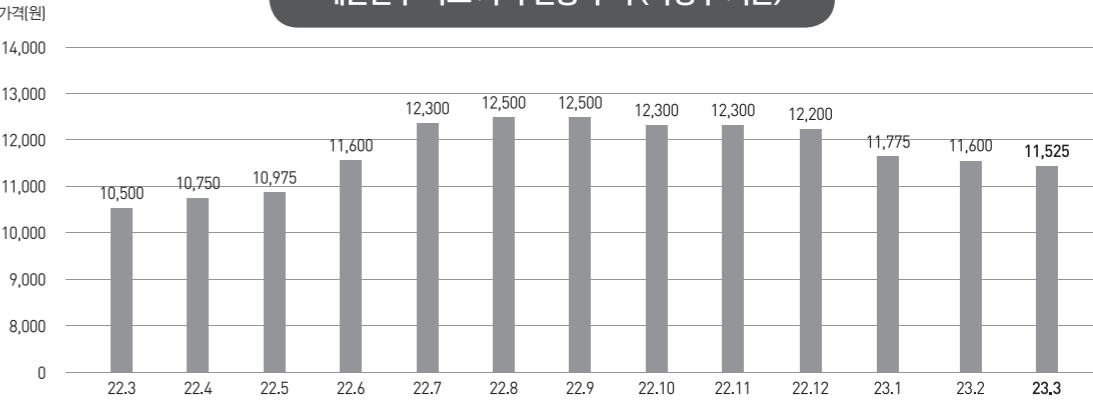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반영안된 가격임)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어린송아지	번식우	육성	비육전기	비육후기
14,875	11,375	11,525	11,725	11,975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 한우마당

Hanwoo Journal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은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정보는 물론,  
축산관련 잡지 중 가장 많은 구독부수로  
높은 전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십시오.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 한우마당 뉴스 웹진 <http://www.ihanwoo.kr>



제24권 제3호(통권 196호) / 2023년 3월 10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삼주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광 고 이기찬    제 작 HNCOM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2층  
전 화 02)525-1053 / 02)597-2377

편 집 김재광  
발 송 자산포스트  
팩 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인터넷 한우마당 [www.ihanwoo.kr](http://www.ihanwoo.kr)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http://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